

2022. 1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2022. 1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이 보고서를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본 기관에 의뢰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사회투자지원재단

상 임 이 사 김 유 속
책 임 연 구 원 송 현 성
연 구 원 이 경 원

목차

제1장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취지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25
2. 연구 방법 및 내용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28
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28
1)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28
2) 2017~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 사례	28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31
1) 충남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31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31
3. 2022년~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35
1) 국정과제	35
2) 대선 공약	35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37
1. 일반현황	37
1) 기본현황	37
2) 인구사회학적 특징	38
3) 산업 및 경제 현황	39
4) 주요 사회환경적 특징	39
5) 주요 의제	41
2.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44
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현황	44
2)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46
3.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52
1)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본 현황	52
2) 청양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현황	58
3) 청양군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	60

목차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65
1) 진행개요 및 참석자	65
2) 회차별 진행결과	66
3) 청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67
4) 활성화 계획 세부논의	71
5)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도	74
6) 실행계획서	75
제4장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결과	81
1. 모니터링 진행 개요	81
1) 모니터링 배경 및 목적	81
2) 모니터링 진행개요	81
2. 지역별 사업 진행 개요	82
1)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공주	82
2)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당진	83
3) 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논산	85
4) 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서산	87
제5장 정책제언	97
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의지 강화 필요	97
2.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100
3.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102
참고자료	105
- 참고문헌	105

표목차

<표 1-01>	충남도 시·군별 사회적경제 현황	22
<표 1-02>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	24
<표 3-01>	청양군 산업별 종사자 현황	39
<표 3-02>	2018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결과	41
<표 3-03>	2022년 청양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42
<표 3-04>	5년 후 희망하는 청양	43
<표 3-05>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례	44
<표 3-06>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45
<표 3-07>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45
<표 3-08>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45
<표 3-09>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초현황	52
<표 3-10>	청양군 사회적경제 업력과 업종 비율 현황	52
<표 3-11>	청양군 사회적경제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	54
<표 3-12>	청양군 사회적경제 2021년 당기순이익 추정치	54
<표 3-13>	청양군 사회적경제 2021년 자산 총계 추정치	55
<표 3-14>	청양군 사회적경제 근로자 평균 근무기간	55
<표 3-15>	청양군 사회적경제 2021년 사회공헌 지출비용 추정치	56
<표 3-16>	청양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57
<표 3-17>	청양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만족도	57
<표 3-18>	청양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공식 협력활동 매년 참여정도	58
<표 3-19>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대하는 사항	59
<표 3-20>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명단	60
<표 3-21>	청양군 사회적경제 2022년 내 폐업 또는 휴업 고려여부	61
<표 3-22>	청양군 사회적경제 2021년 고용조정 규모	61
<표 3-23>	청양군 제품 및 서비스 목표 고객	62
<표 3-24>	청양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급한 개선사항	63
<표 3-25>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실행주체	65
<표 3-26>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차별 진행현황	66
<표 3-27>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회차 워크숍 결과	67
<표 3-28>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회차 워크숍 주제 선정결과	68
<표 3-29>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4회차 워크숍 결과 : 분과별 계획서 공유 및 앞으로의 과제	68
<표 3-30>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정 과제 및 추가 의견	71
<표 4-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지 모니터링 진행 개요	81

그림목차

[그림 1-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	23
[그림 2-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30
[그림 2-2]	충남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31
[그림 2-3]	충남 따숨몰 운영 원리	34
[그림 3-1]	청양군 인구사회적 특징	38
[그림 3-2]	청양군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2020)	38
[그림 3-3]	청양군 SWOT 분석	40
[그림 3-4]	청양 민선 8기 비전	44
[그림 3-5]	민선 7기 연차별 중점 추진계획	47
[그림 3-6]	2021년 청양군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현황	48
[그림 3-7]	청양군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49
[그림 3-8]	청양군 사회적경제 매출액 및 종사자 분석	53
[그림 3-9]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64
[그림 3-10]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체계도	74
[그림 4-1]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체계도	82
[그림 4-2]	당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략체계도	83
[그림 4-3]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85
[그림 4-4]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3개년 전략 체계도	87
[그림 5-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 강화 필요	97
[그림 5-2]	의제별 관련 부서 정기 논의구조 사례	99
[그림 5-3]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100
[그림 5-4]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102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난 10년 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와 매출,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한편,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조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기존의 목표달성 중심의 성과모델 보다 사회적자본인 외부 협력조직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들에게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했을 때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1년에 실시한 사회적경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네트워크 수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음(평균2.88)
- 이에 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의제 개발과 중장기 전략 사업에 참여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천안시¹⁾ 등 5개 지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외부적 지원과 네트워크 내부의 노력이 만났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 연구 목표

- 2020년, 2021년 사업의 경험으로 유추할 때 지역별로 네트워크의 수준과 과제는 각기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세스로 설계하기 보다는 지역 내 네트워크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연구 목표를 수립하고자 함

1) 천안시사회적경제연대는 2018-2019년에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함께 네트워크 설립과 중장기전략수립 연구 및 워크숍을 진행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제를 도출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공동으로
 - △ 선정된 지역의 현안과 정책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 △ 민간 네트워크의 비전과 중기핵심전략을 도출하며
 - △ 사회적경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역별 특화영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 △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중단기 전략을 구상
- 더불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충청남도 4개 지역(당진, 공주, 서산, 논산)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활동이 2022년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 문헌조사

- 기존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지역 현안 취합
- PEST(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

(2) 지역 현안 분석 : 문헌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지역의 현안사항 및 지역사회 핵심 문제(이슈)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업종별 현안 사항 조사 및 애로사항 분석

(3) 이해관계자 조사 : FGI, 인터뷰, 간담회

-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연대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의 핵심과제 및 전략에 대한 조사
- 지역의제별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한 예비 지역의제 취합 및 지역의제화 심층 논의
- 지원조직 및 관련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논의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욕구 파악

(4) 전략 및 비전수립을 위한 의제워크숍

-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의 적용
 - 액션 러닝은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팀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성찰 등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으로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의제별 워크숍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
- 의제 및 의제발굴 주요 과제 선정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 분석

1. 중앙정부

- 2017~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사례

정책		지역 사례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금융분야	- 충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19.10.30)
	판로분야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 & 따숨몰) -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 2020년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선정(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혁신분야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건립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충남 중점 지원 분야 : 스마트유통, 전통웰빙식품, 언택트컨텐츠
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 서천 한산 청년자립공동체 : "삶기술학교" -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 서천군 장항읍 성주지구(도시재생 인정사업), 장항읍, 한산면(도시재생 예비사업) -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 2022년~(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1.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

2.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지원

3. 사회적 금융 투자 유도

사회서비스에 민간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회복지와 연계 확대

2.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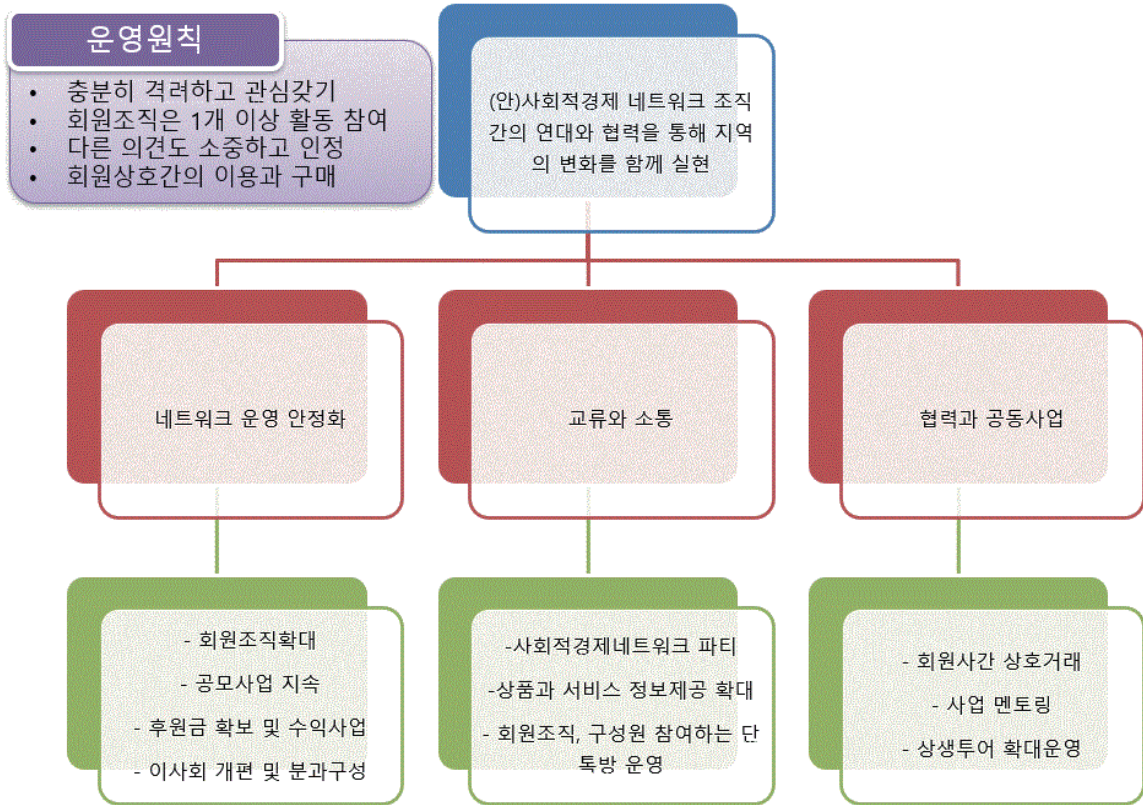
분야	정책	목적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특화된 분야의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으로 창업준비자의 원활한 사회적경제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역/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력성장 기반강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등 지속 성장 유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충남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과 마케팅을 컨설팅 및 지원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1. 워크숍 진행 개요

회차	일자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회차	22. 5.3(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오주아, 박영숙, 명덕재 (청양군청) 김명선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연구 실행계획 및 진행 프로세스 공유 청양군 기초 문헌연구 결과 1차 공유 청양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과제 확인
2회차	22. 6.7(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허지혜, 이다정 (청양군청) 김명선, 박지현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타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례 공유 네트워크에서 청년의 참여 사례 공유 회원사·비회원사 수요조사 공유 공공구매 관련 현황 공유
3회차	22. 6.20(월) 청양 휴양랜드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오주아, 박영숙, 허지혜, 박소현, 이춘복 (청양군청) 김명선, 박지현, 김용태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비회원사 조사내용 공유 공공구매 업데이트 공유 청사넷 과제 논의
4회차	22. 7.18(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최치희, 소철원,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청양군청) 김용태 (충남사경) 강윤정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팀별 계획서 공유 팀별 계획서 논의 및 앞으로의 계획 공유
5회차	22. 8.12(금) 청양 알프스마을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허지혜, 이재영, 김기홍, 전귀정, 이광현, 임득균, 김정옥, 김종길, 성욱, 김은진, 구민진, 김기철, 황준한 (재단) 김우정 (청양군청) 김용태 (충남사경) 강윤정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기존 논의내용 공유 기존 논의 구체화
6회차	22. 10.11(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박소연, 김기철, 강태수, 명덕재 (재단) 김우정 (청양군청) 김용태, 박지현 (충남사경) 강윤정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사업 실행계획서 최종확정 및 분과구성 및 역할분담

2. 주요 의제 및 과제



3. 의제 실행 계획서

의제	목적	목표
회원조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지 않는 회원사/비회원사들 참여/가입 활성화 - 신규조직들의 네트워크 가입 활성화 - 구성원 확대를 통한 조직 안정화 (회비 확보) 및 사업 활성화(꾸러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성화재단과 신규조직 지속적으로 방문 (군청연계) - 분과활동을 통한 회원사/비회원사 지원 1회 이상 - 네트워크 회원사 10개 이상 확대(단체)
네트워크 의사결정/참여구조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활성화/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모임의 정례화 - 이사회, 사무국, 달빛마켓, 분과 명확하게 역할 분담 - 이사회 등 다양한 논의구조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정기적 논의 구조 운영 - 네트워크 분과 구성((안)소통조직분과, 공동사업분과) - 회원사들에게 정관 및 총회/이사회/분과회의 회의록 공유
네트워크 교류와 소통/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 확대 -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로촉진을 꾸러미/협력사업 통해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인의날' 지원조직과 공동으로 주최 및 참여 - 네트워크 파티(2022년도는 사업 성과보고회) 2회 이상 추진(회원사 80% 이상 참석) - 사회적경제조직 상품 및 서비스 정보지 제공 (행사 때) - 네트워크 멘토링 관련 조사 및 연계 - 상생투어 연계상품 개발 및 실행(10회 내외) - 청양군 네트워크 상호거래를 위한 물품·서비스 조사 1회 / 상호거래 협약식(상호거래 장려하는 시상식)
재정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지원금/사업비 이외에 네트워크 회비/기금/후원비 확대 및 확보 - 자부담 인건비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별도의 운영비/인건비 (인건비 자부담, 사무실 사용 및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약1,000만원/월 80만원 필요·확충 - 인건비 지원금/지원사업/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 달빛마켓 등 2건 7,000만원 이상 확충 - 네트워크 회비(25만원/월, 300만원/연간) +네트워크 내부 후원비(300만원/연간) 600만원 이상 확충 - 네트워크 측면의 수익사업 혹은 외부 후원 : 400만원

제4장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4개 지역(공주, 당진, 논산, 서산)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
- 충남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2) 진행 결과

	일자	지역	진행방식	참석자
1	2022.05.25.	논산	온라인 줌	하00, 김00, 오00, 이00
2	2022.05.25.	서산	온라인 줌	김00, 서산 네트워크 간사, 김00, 오00, 이00
3	2022.05.25.	공주	온라인 줌	김00, 소00, 김00, 오00, 이00
4	2022.05.26.	당진	온라인 줌	송00, 조00, 김유숙, 이경원
5	2022.09.01	서산	대면	김00, 이00
6	2022.09.07.	공주	대면	소00, 이00
7	2022.09.07.	당진	대면	박00, 이00
8	2022.09.28.	논산	온라인 줌	하00, 이00

2.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1) 공주

- 리더십과 인수인계 과정의 단절
 -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리더들이 2기 운영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사업(연구)의 결과와 과정이 다음 연도까지 연결되지 못함
- 사업만 하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 차후 년도에 네트워크의 새로운 대표와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어 광역단위 사업, 기초단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자체의 조직 활동은 거의 없어 지고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직들만 결합하게되는 상황이 만들어짐
- 구성원의 세대교체 실감
 -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초창기에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이 많이 모여 창립이 되었음. 하지만 현재는 네트워크 성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성격으로 바뀜. 이전 1세대처럼 사회적가치를 우선순위로 하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졌음. 또한 회원사들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1-2명이 일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 부족에 처해 있음)

2) 당진

- 민관거버넌스 및 지방선거
 - 2021년도 당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시 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을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변화시켰던 경험을 했음
 - 시에서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안을 끊임 없이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현장에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거절될 경우 네트워크 실무자가 동력이나 동기부여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네트워크 내부
 - 회원 증감 : 큰 변화가 없음. 조직 확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음
 - 협력구조 : 매월마다 진행하는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네트워크 대표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약간씩 역할 분담하여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음
 - 넷피아 등 외부 자원을 통해서 회원사들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과의 협력, 시민 이해도 향상
 - 중앙 및 광역 단위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 지역에서는 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분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운영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이 기업 운영에 바빠서 네트워크에 몰입하기 어려움
 - 네트워크에 신규 인물 발굴이 안되고 후세 양성도 안됨
 - 지원센터가 부재하니 지원센터 운영비용만큼 비용을 지원해주면 네트워크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예시: 인건비 보조)

3) 논산

(2)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분과의 원활한 역할 분담 및 정기모임 지속적 운영
 - 2021년도 워크숍을 통해 4개 분과 구성 → 현재 3개 분과 활동
 - 각 분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조직 및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있게 활동을 하고 있음
 - 워크숍 이전에는 하주현 대표 개인이 총무, 행정, 사업 진행을 모두 맡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
 - 정례적 모임도 6명(조직) 정도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 회원사들이 월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네트워크 학습 모임 시 '재미'라는 요소의 중요성
 -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가치나 이론 위주로 학습했는데 학습자들의 관심도나 참여율이 낮았음
 - 하반기에는 학습자들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플리마켓 관련 교육을 했는데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호응이 높았음

-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네트워크)로 외연 확장
 -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로 바꾸면서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들어오게 되었음. 사회적기업만 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도 더 활성화되었음

4) 서산

- 분과 및 월례회의 운영
 - 인원이 적게 나와도 매달 분과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나 아이템이 없는 환경, 문화예술 분과는 많이 흐지부지해졌음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회비는 35개 회원사 중에 7개만 회비 내고 있음(연회비, 인증사회적기업 70만원·나머지 30만원으로 월 3만원 이하)
 - 회원사들이 월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2년에 한번씩 실무자를 바꾸려고 함. 그러나 집행부가 한꺼번에 바뀌면 연결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함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적 파트너십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3. 시사점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 필요
 -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질문이 ‘뭘 해줄 것인데’ 임. 다만,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익을 내기 어려움. 또한, 성과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적가치·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간 균형을 맞춰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하고 회원사로부터 받기도 해야 함. 또한 장시간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외연확장을 위한 다양한 주체 참여 필요
 - 4개 지역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그 이외의 유관단체들과도 결합할 경우 결사체와 사업체 균형을 맞추며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네트워크 정책 및 제도 개선
 -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소도시나에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 양상이 제각각임
 - 특히나 소도시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청년들이 주변 중소도시나 대도시로 이동을 많이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제5장 정책제언

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의지 강화 필요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

-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주체와 지방정책에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정부 해당 부서와의 협력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간의 정책 공동생산과 평가가 형식화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책임과 실현은 민간주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속적 거버넌스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간에 △심층적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공동의 목표 지속적 확인과 합의 △협력을 통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쪽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실행의지라고 할 수 있음
- 최소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 논의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간계획 및 예산수립과 그에 대한 성찰과 평가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외에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실무기관 정책협의회, 정기적 행정과 네트워크의 간담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정책협의 및 연찬회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의 정책 파트너가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협의회 조직과 네트워크임을 인식시키고 △보조금 사업과 지원사업을 진행할 시 민간조직과 사전 논의를 거치고 협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을 요청함

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례의 의미와 역할은 막강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단위에서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이 필수임. 민관의 협력 및 논의구조 또한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지원조례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는 논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등과 같이 ‘육성위원회’ 보다는 낮은 수위의 실무 논의 구조를 명문화시키고 최고 상위 논의기구인 ‘육성위원회’에서 각 논의기구에서 확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보다는 민간 논의가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 구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주적 경제공동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도 함.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외에 전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와의 논의 구조 외에도 해당 부서와 해당(업종 및 의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기적 논의구조에서 민간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공공구매 계획수립에 대한 진행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함

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 공공구매 계획 수립

-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지자체 공공구매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 해야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임
- 지방정부 공동구매 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구매할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종을 조사하면 다수의 기업이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해당부서와의 연계와 매칭이 중요함.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의제별 주제별 맞춤형 의제회의가 정착한다면 공공구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미스매칭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통해 품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구매에 참여할 경제조직을 모집하고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생산 총량을 조사하면 미스매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2.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이 당사자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주(自主)와 자조(自助)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동기부여에서 시작되어야 함.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가치와 의미가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의미성에 대해 알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광역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핵심리더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자문과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초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에 상호 정보와 신뢰가 부족한 초기 네트워크 단계의 경우 당사자조직 내부에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초동 주체를 모집하고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방향과 원칙, 조직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의 동력과 뿌리는 당사자 조직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중간 지원 조직은 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뿐, 네트워크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조직 운영의 책임은 네트워크 회원들의 결정과 책임감 있는 물적·인적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원조직(광역 및 기초)은 네트워크에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인의날, 네트워크 파티, 상호거래 수요조사, 사회가치현황 조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조직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자원이 부족한 네트워크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협동사업의 개발과 지원

- 지난 3년동안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네트워크에 바라는 가장 큰 갈급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사회적가치를 확산 △회원사 간 상호구매와 상호거래의 활성화 △공동 유통 및 마케팅 △ 공공구매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 △자조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초 및 광역 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사들에게 공통으로 협력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을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상호거래의 실적을 네트워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트워크 힘을 실어주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음

4)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업활동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함. 즉, '효율성과 교환'의 법칙 보다는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사회적경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각자가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와 제도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예산, 조례 등에 대해 네트워크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해야 하며,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는 각 해당하는 업체들의 사업분과, 사업네트워크, 업종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 성장하는 수도권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보면 네트워크 활동이 성장하고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외에 다양한 논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이사회는 네트워크 경영, 운영을 결정하는 성격을 띠게되고 실질적 사업 논의와 실행은 사업위원회 및 분과, 팀 등으로 세부화된 논의구조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및 분과 등으로 논의 구조가 다양해 졌을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초기 세팅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기업이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함

2)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정보공유와 신뢰 강화

- 회원사들이 네트워크를 찾고 필요성을 느끼며 협동할 수 있는 기반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업종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 간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식적 논의 구조의 공개도 매우 중요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대부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위원회(분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기구의 회의록과 활동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수의 회원들은 네트워크 논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음

3) 네트워크의 공공성·공익성 유지 및 확보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타 지역 사례를 분석했을 때(2020. 2021년도 결과보고서 참조) 성장하고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네트워크가 강력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 회원조직들의 결사체인 '협의회' '네트워크' 등이 자주 겪게되는 오류는 회원사들의 이익과 편익만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이익단체화 되는 현상임.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편익을 중심에 두는 경향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개별조직들은 사회적가치와 지역문제 해결의 의제를 주장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네트워크에는 실질적 사업을 확보하거나 판매가 잘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 따라서 네트워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확보하여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시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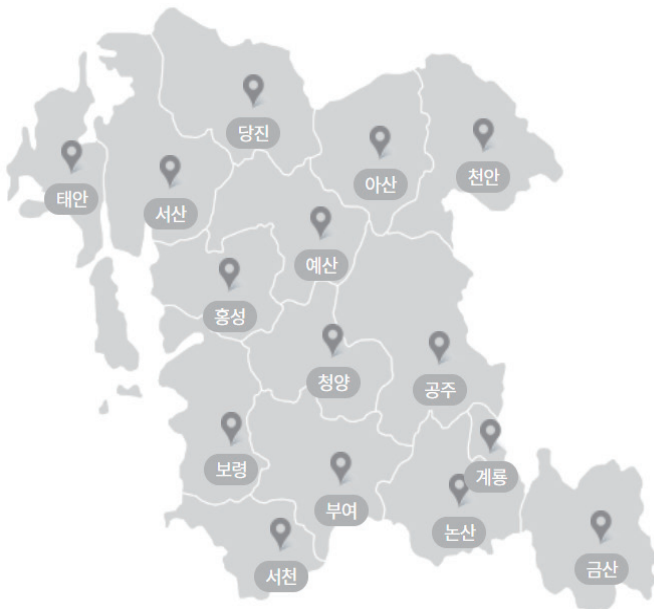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취지

1) 연구의 배경

-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와 매출,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행정 및 정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 (3차 사회적기업육성 5개년 계획)
 -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인프라가 천안, 아산, 청양 등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주체발굴과 대응도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외부적 평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¹⁾
 - 또한 지역 불균형, 고령화, 다문화 비율의 증가,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이슈 등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대응전략이 적절하고 적극적인지에 대한 외부적 평가와 더불어 자성의 목소리가 현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음



충남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14
시군네트워크	15
사회적기업(예비)	277
마을기업(예비)	169
협동조합	970
자활기업	52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 3. 30 검색)〉

1)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8),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에 준함

<표 1-1> 충남도 시·군별 사회적경제 현황

발 전	중간지원 조직	시·군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예비)	협동조합	자활기업	총합계
천안시	3	1	59	8	181	7	259
공주시	1	1	20	23	75	4	124
보령시	1	0	11	12	46	3	73
아산시	3	2	50	14	132	3	204
서산시	1	1	23	14	67	3	109
논산시	1	1	18	14	58	4	96
계룡시	0	0	2	3	9	0	14
당진시	0	2	17	8	71	2	100
금산군	0	1	4	11	52	3	71
부여군	1	3	12	11	29	3	59
서천군	1	1	21	8	51	4	86
청양군	1	1	7	11	33	2	55
홍성군	0	1	14	14	56	5	90
예산군	0	0	14	8	58	5	85
태안군	1	0	5	10	52	3	71
총합계	18	16	217	155	809	47	1,262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 3. 30 검색)>

-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조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²⁾
-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기존 목표달성 중심의 성과모델보다 사회적자본인 외부 협력조직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연결망, 신뢰 등)을 확보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에 주요함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 및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자원의 연계적 협력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음

2) 사회투자지원재단 (2020),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수립'

- 따라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들에게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했을 때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의 의제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또한 지역 의제 해결에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주체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확보했을 때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바르게 정착할 것임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1년에 실시한 사회적경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수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음(평균 2.88)
- 이에 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의제 개발과 중장기 전략 사업에 참여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천안시³⁾ 등 5개 지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외부적 지원과 네트워크 내부의 노력이 만났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1-2>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

(단위 : %, 점)

구분	전혀없음	교류부족	보통	활발	매우활발	평균(점)	
전체	7.4	23.8	45.9	19.6	3.3	2.88	
기업소재지	천안시	0.7	13.6	53.1	30.6	2.0	3.20
	공주시	18.8	7.1	40.0	24.7	9.4	2.99
	보령시	14.6	33.3	47.9	4.2	-	2.42
	아산시	7.6	34.3	36.2	20.0	1.9	2.74
	서산시	-	29.1	39.2	31.6	-	3.03
	논산시	5.1	17.9	64.1	7.7	5.1	2.90
	계룡시	11.1	-	77.8	11.1	-	2.89
	당진시	1.3	16.0	61.3	18.7	2.7	3.05
	금산군	-	34.8	50.0	15.2	-	2.80
	부여군	14.3	45.7	28.6	2.9	8.6	2.46
	서천군	11.1	27.8	31.5	24.1	5.6	2.85
	청양군	6.3	18.8	62.5	12.5	-	2.81
	홍성군	-	30.4	44.6	25.0	-	2.95
	예산군	35.3	23.5	23.5	3.9	13.7	2.37
태안군	-	30.6	59.2	10.2	-	2.80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결과(202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천안시사회적경제연대는 2018~2019년에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함께 네트워크 설립과 중장기전략수립 연구 및 워크숍을 진행함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2020년, 2021년 사업의 경험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지역별로 네트워크의 수준과 과제는 각기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세스로 설계하기 보다는 지역 내 네트워크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 지역별 연구 목표를 수립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제를 도출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공동으로
 - △ 선정된 지역의 현안과 정책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 △ 민간 네트워크의 비전과 중기핵심전략을 도출하며
 - △ 사회적경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역별 특화영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 △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중단기 전략을 구상- 더불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충청남도 4개 지역(당진, 공주, 서산, 논산)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활동이 2022년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2022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 : 청양, 서천
- 2020~2021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니터링 : 공주, 당진, 서산, 논산

(2) 시간적 범위

- 2022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 : 2022년도 기준
- 2020~2021년도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니터링 :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후~2022년 기준

2) 연구의 방법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 문헌조사

- 기존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지역 현안 취합
- PEST(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

(2) 지역 현안 분석 : 문헌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지역의 현안사항 및 지역사회 핵심 문제(이슈)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업종별 현안 사항 조사 및 애로사항 분석

(3) 이해관계자 조사 : FGI, 인터뷰, 간담회

-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연대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의 핵심과제 및 전략에 대한 조사
- 지역의제별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한 예비 지역의제 취합 및 지역의제화 심층 논의
- 지원조직 및 관련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논의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욕구 파악

(4) 전략 및 비전수립을 위한 의제워크숍 : 액션 리서치 & 액션 러닝

-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의 적용
 - 액션 리서치는 현장실무자와 연구자가 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탐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연구방법으로 연구 과정을 통해 현장실무자들에게 배움과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법임
-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의 적용
 - 액션 러닝은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팀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성찰 등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으로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의제별 워크숍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
 - 액션 러닝을 통해서 진행되는 지역의제별 워크숍 참여자들은 의제별 실행계획을 통해 실질적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제별 네트워크로 조직됨
- 의제 및 의제발굴 주요 과제 선정
 - : 지역자산기반지역사회개발(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 지역사회자산기반 지역사회개발(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밝혀내고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공동체 발전방식임
 - 지역의 강점은 물론이고 취약한 부문으로 인식되던 요인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기 유발하는 것으로, 정부나 기업 등 외부의 지원보다 내부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필요기반 지역사회개발과 자산기반 지역사회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 분석

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 자료는 아래와 같음
-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021.12.01. 관계부처 합동
 - 2017년~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 사례
-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 관계기관 합동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2022년도)
- 충남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2018년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2018-2022)
- (보도자료) 윤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 속 확대가능성 기대, 이로운넷, 2022.03.11.

1)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¹⁾

-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적 기반 마련
 - 민간중심 거버넌스 구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지방 간 체계적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 인재, 금융, 판로 혁신 분야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해 창업,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 상생, 나눔, 연대, 협력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인식, 소통 등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가 가시화되고 확산되도록 지원

2) 2017~2022년(문재인 정부) 정책과 지역 사례

(1)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및 성과	관련 지역 사례
(금융) 정책자금 공급, 인프라 조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활성화 → 지자체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 확대('16년 6개 → '21년 14개)	충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19.10.30)
(판로) 공공구매 확대와 민간 유통채널 이용 활성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약 1.9조원까지 확대 ('16년 0.81조원 → '20년 1.89조원) → 소셜벤더* 양성('19년~, 現 5개사), 유통지원센터 신설 ('18~, 現 8개소) * 소셜벤더 : 상품 발굴, 유통채널 입점 연계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 전문조직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 & 따숨몰) -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 '20년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021.12.01. 관계부처 합동

정책 및 성과	관련 지역 사례
<p>(혁신) 지역별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R&D 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15개), 혁신타운(6개) 건립 및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등 3천여팀('17~'20 누적) 창업 지원 → 총 233개 과제 R&D·사업화 지원('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지역: 청양군 - 사업 기간: 2020년~2024년 - 총 사업비: 280억원(국비 140, 도비 84, 군비 56)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중점 지원 분야: 스마트유통, 전통웰빙식품, 언택트콘텐츠 * 사례) 충남사회적경제 연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스마트유통 활성화)

(2) 사회적가치 구현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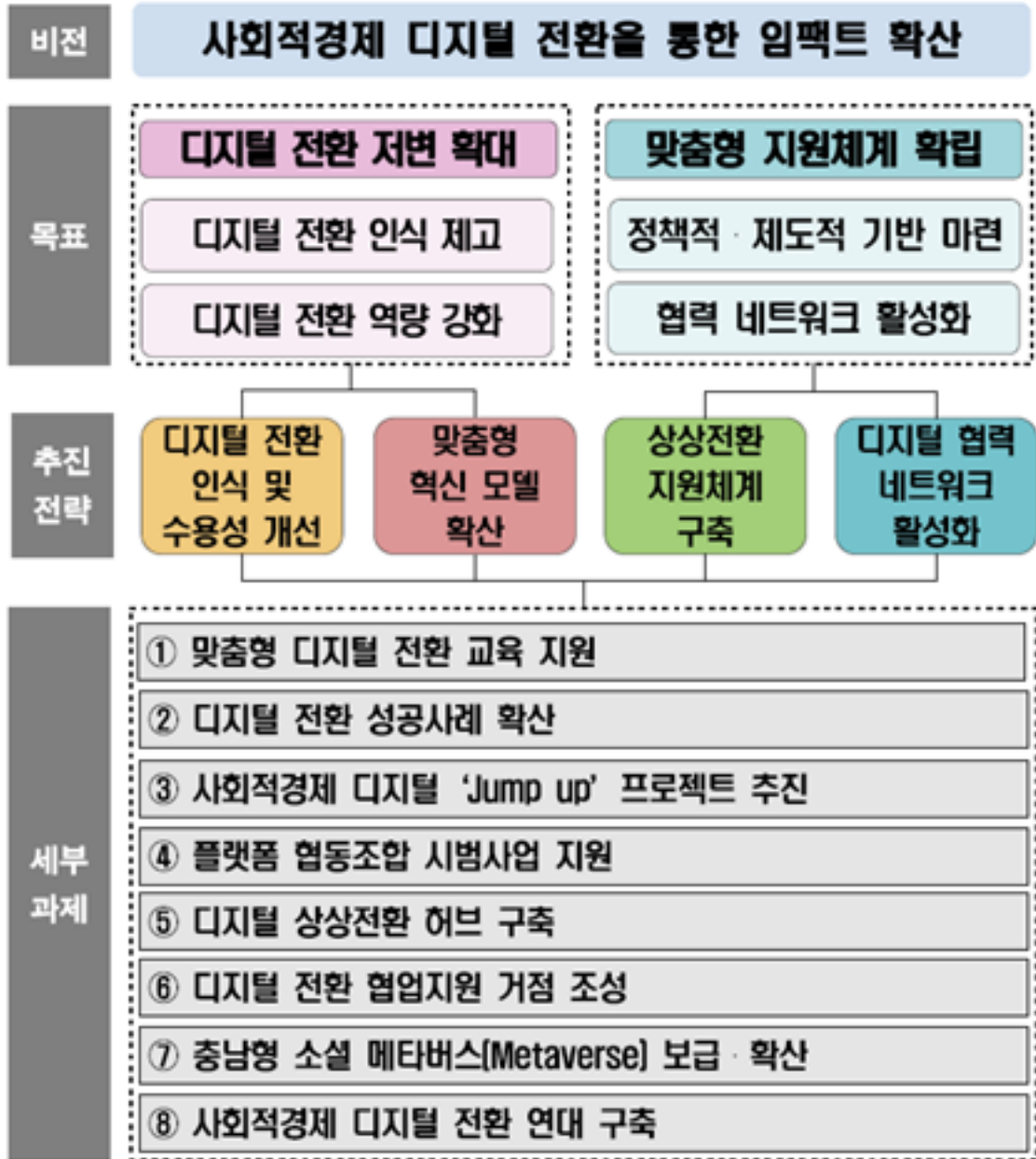
정책 및 성과	관련 지역 사례
<p>(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 돌봄·의료 등 복지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지역공동체 회복 등 활동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 한산 청년자립공동체: '삶기술학교' (운영기관: 자이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 선정 - 충청남도과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 도시청년 60명이 한산지역에 정착 - 15개 팀이 창업을 하고, 20곳 이상의 빈집을 직접 재생함 - 마을에 방치된 옛 서장광여관을 대상으로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 : 소곡주 양조 전통산업과 융합시킨 '호텔한산' 만듦 커뮤니티케어: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화양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의료와 복지를 통합지원하는 사업) 지역재생: 장항읍 성주지구(도시재생 인정사업), 장항읍, 한산면(도시재생 예비사업) 사회적농업: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안제인가든), 2021년 7월 개소(서천군 기산면)

(3)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선도 → 혁신적 기업 발굴·육성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적 역할 수행 (예: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지원, 업사이클링 사업모델 확산 등)

관련 지역 사례 ²⁾
<p>-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충남연구원, 20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식 및 수용성 개선 ②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혁신모델 확산 ③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상상전환 지원체계 구축 ④ 연대-호혜 기반의 디지털 전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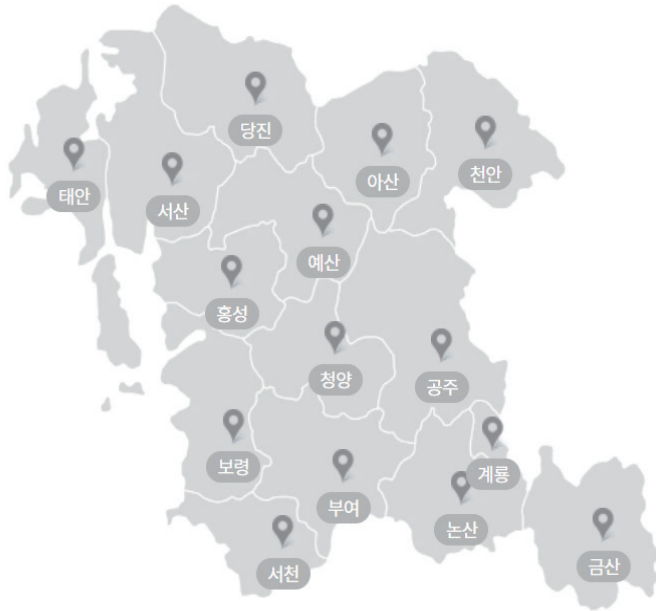
2)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략 촉진 방안 연구_이홍택, 홍은일, 2021.12.31., 충남연구원



<그림출처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충남연구원, 2021)>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1) 충남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충남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14
시군네트워크	15
사회적기업(예비)	277
마을기업(예비)	169
협동조합	970
자활기업	52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4.25. 기준>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2018-2022)

- 조직인재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보육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특화형 기업 발굴
 - 사회혁신형 인재양성
- 시장조성 및 판매촉진
 -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조성 및 확대
 - 공공구매 활성화 촉진
- 협력 시스템 구축
 - 충남형 협치체계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 충남형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 조직, 제도적 기반 구축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2022년도)

-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사업목적	특화된 분야의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으로 창업준비자의 원활한 사회적경제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업내용	<교육 및 컨설팅 운영> - (교육 프로그램) 6개월(주 2~3회) / 총 100시간(이론 50, 실습 50) - (시제품 생산 및 시연) 창업준비자 대상 시제품 시연회 개최
지원대상 및 규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준비자 또는 초기 기업> - (1명 기준) 교육(100시간, 컨설팅(3회), 시제품 제작(1백만원) 등 지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광역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업목적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력성장 기반강화
사업내용	- 지역·부문·업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적 공동사업 - 판로 개척, 공동브랜드 개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협업 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 발굴 및 육성 사업 -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융합 모델 발굴 * 단순 지역 업종 간 네트워크 구축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외
지원대상 및 규모	1개소, 3천만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사업목적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을 위한 ① 맞춤형 공동사업 및 ②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7월) -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판로 개척, 인식제고 등
지원대상 및 규모	4개 시·군(공모선정 차등 지원) / 102백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목적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등 지속 성장 유도
사업내용	-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대상) 재정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규모) 시·군에 따라 다름(기업당 약 1천만원에서~2천만원)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지원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판로확보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 운영기관(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온라인 입점 및 판매에 적합한 상품기획, 패키지 구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매출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할인 프로모션 - 쇼핑몰 판로확보 및 연계 상품 홍보 - 기획전 배너광고 및 쇼핑몰 고객대상 이메일 DM, 모바일 광고 -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규격, 패키지 등으로 구성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10여명) - 사회적경제의 이해, 온라인마케팅 및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교육 등 지원 - 소셜셀러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매칭·협력 지원, 유튜브 등 활용하여 홍보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과 관련된 SNS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 등 지원 - 향후, 사회적경제제품 개인판매자 활동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연계 등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소셜셀러) 사회적경제 온라인 소셜셀러를 희망하는 도민 10명 내외 (기업) 온라인 소셜셀러와 협력하여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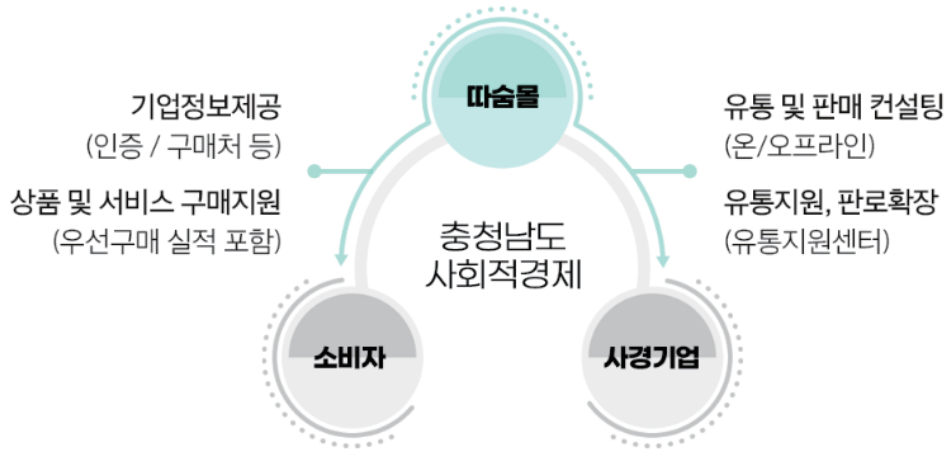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운용규모) 200억원(2020년~2024년, 신용대출 100, 담보대출 100)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2% 이내, 실금리 1%)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충남 사회적경제육성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도내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법인)

•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사업목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위치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 일원(청양여자정보고/폐교)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341㎡, 연면적 7,333㎡(1동, 지상4층) - 사업규모 : 280억원(국비 140, 도비 84, 군비 56)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입주, 창업육성,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지원, 교육, 홍보(전시·판매), 네트워킹 등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사업목적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과 마케팅을 컨설팅 및 지원
사업내용	<따숨몰(충남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쇼핑몰)> -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검색하고 정보 확인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쇼핑몰



<그림 출처 : 따숨몰홈페이지(<http://ddasum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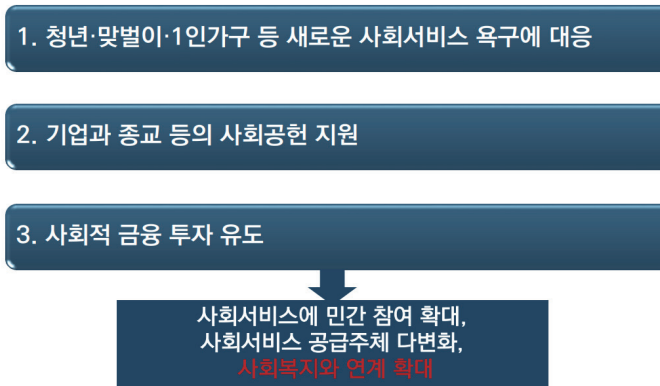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16)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9)
 -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
 -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020.4월)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020.12.30.)
 -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
-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2021.4.30.)
 -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3. 2022년~(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1) 국정과제³⁾

- 국정 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 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는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대선 공약⁴⁾

- 사회적경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은 없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정책'을 계승하는 대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시장경제와 조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순기능 장려입장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을 장려하겠다'고 답변함
- ESG(환경 Environmenta,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강화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강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ESG 지표 활용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제시

3) 출처 : 윤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밑그림 나왔다, 이로운넷, 2022.04.29.

4) 출처 : 윤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속확대 가능성 기대, 이로운넷, 2022.03.11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1. 일반현황

- 청양군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 자료는 아래와 같음
- 청양종합발전전략수립연구(2015)_청양군
 - 청양군 SWOT 분석, SWOT분석에 기반한 미래발전전략
- 2021충남사회지표 종합편, 시·군편(2021)_충남도청
 - 기본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징, 산업 및 경제 현황, 시·군별 문화예술 시설 현황, 여가활동, 사회복지시설 수와 종사자 수, 필요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2021)_청양군
 -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본 현황, 사회적경제·연관 정책 현황,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2021)_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업력·업종 비율 현황, 연도별 매출액 추이, 매출구조, 업종별·조직별 매출액, 영업 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 연도별 종사자 추이, 자산총계,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사회공헌 지출비용, 근로자 평균 근무 기간, 폐업 또는 휴업 고려 여부, 고용조정 규모, 코로나19 대응, 제품 및 서비스 목표 고객, 해결 중인 사회문제, 협력 활동 참여 정도, 네트워크 수준, 지자체·중간지원조직 만족도, 필요한 교육 훈련, 개선사항, ESG 경영 인지도, 목표 고객 유지 위한 활동 등
- 그 외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양군 홈페이지,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2021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현황, 202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0 청양군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청양군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주체 설정 및 추진방안 2020,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2021), 2018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결과, 주요업무계획 및 청양군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자료(정관, 정기총회, 청양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자료) 등을 참고함

1) 기본 현황¹⁾

- 청양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노령화 지수·노령 부양비가 높음.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음. 1-2인가구는 늘어나지만 3-4인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의료와 교육 만족도는 낮은 편임. 그러나 주거환경 만족도는 충남·전국에서 가장 높음. 지역 정주의사가 10점 만점에 7.91점으로 높은 편임
 - 농업 종사자가 많아서 고용률은 높지만 소득이 높지 않음. 타지역에 비해 숙박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적음

1) 2021 충남 사회지표 시군편·종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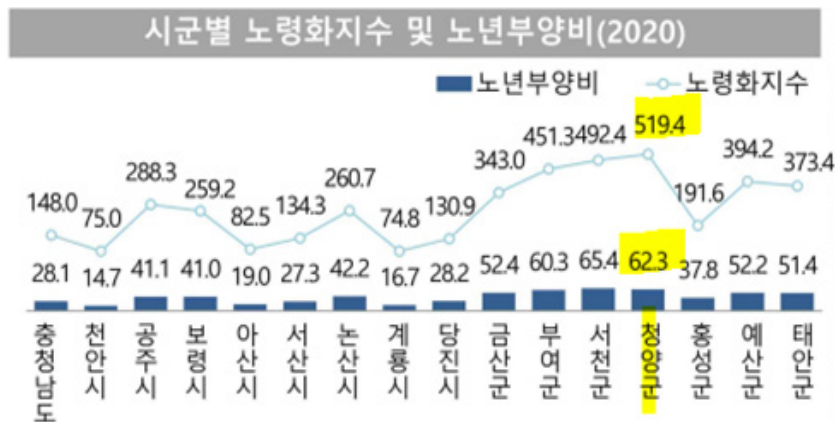
-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은 보령시, 남쪽은 부여군, 북쪽으로는 예산군과 인접.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공주시 40.2km, 보령시 25.0km, 부여군 29.1km, 예산군 30.8km, 대전 80.0km, 서울 158.1km임
- 1개의 읍,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령산맥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통과함에 따라 '충남의 알프스'로 불릴 만큼 산지가 발달해 있음.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음. 47.3%의 지역이 생활권 접근에 제약이 있음(도시지역 비율 10%, 임야 면적 89%)
- 양성평등, 다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음

2) 인구사회학적 특징²⁾

- 2022년 3월 기준 청양군 인구는 31,154명(외국인 607명 포함)
 - (인구 특징) 인구증가율은 -2.42%로 충남 평균 인구증가율(-0.40%)에 미치지 못하고, 평균 연령은 53.8세(중위연령 58.3세)로 도내에서 가장 높음
 -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
 - 2020년 기준 유아학생(0-19세)은 3333명
 - 2020년 기준, 시·군 내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고(청양 519.4%, 전국 134.7%, 충남 148%) 총부양비도 서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청양 74.3%, 전국 40%, 충남 47.1%)
 - 1만명 이상이 청양읍에 거주. 평균 거주기간이 48.3년으로 시·군에서 가장 김(충남 32.1년, 내륙권 37.7년)
 - 다문화 가구비율 2.5%로 높은 편(충남 평균 2.1%)
 - 노년부양비는 서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청양 62.3%, 전국 22.9%, 충남 28.1%) 반면 유소년부양비는 가장 낮음(청양 12%, 전국 17%, 충남 19%)
 -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1.6으로 서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전국 4.4명, 충남 3.6명)



<그림> 청양군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림> 청양군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단위%)

2) 2021 충남 사회지표 시군편·종합편

3) 산업 및 경제 현황³⁾

< 2020년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 >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점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충남	취업자 수	1,176	162	250	75	204	100	386
	구성비	100.0	13.8	21.3	6.4	17.3	8.5	32.8
청양	취업자 수	22	12	2	1	2	1	4
	구성비	100.0	54.4	8.4	4.2	9.8	4.7	19.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

<그림> 청양군 산업별 종사자 현황

- (지역내총생산) 청양의 지역내총생산은 1.18조원(GRDP, 2019년)으로 충남에서 가장 낮음 (충남지역내총생산 114조)
- (재정자립·자주도) 2022년 2월 기준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는 9.71%로, 전국평균(45.3%), 충청남도 평균(33.1%)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임. 재정자주도는 57.12%로, 전국평균(68.8%)과 충청남도 평균(67.1%)보다 낮음. 하지만 동일유형 자치단체(ex. 경북 울릉군 포함 21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7.59%)보다는 높고, 재정자주도 평균(60.67%)보다는 낮음. 1인당 세출예산 1,480만원
- (취업자 현황) 2020년 기준 청양군 산업별 취업자는 2만2천명. 청양군 전체 산업 현황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전체의 4.2% 차지함(2020년 기준)
 - 충남 평균과 비교했을 때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그 외 모든 업종이 평균값보다 낮음. 농림과 공공부문에 집중되어있고 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 집적도가 낮음
- (소득소비) 청양군은 도 평균에 비해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으며, 소비지출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인 비율이 26.6%로 가장 높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액도 100~200만원이 28.8%로 가장 높음(충남평균 16.9%, 25.1%)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비율(11.8%)이 도내에서 5번째로 높으며, 50만원 미만 소비지출하는 비율(16.0%)도 충남 평균(10.9%)보다 높음

4) 주요 사회환경적 특징

- <청양군 종합발전 전략수립연구 2015>에 의하면 청양군의
 - (강점)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64.8%고,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충남에서 가장 넓음. 칠갑산을 중심으로 농산물 재배에 알맞은 기후를 형성, 맛과 향이 뛰어나 고추·구기자 등 품질 좋은 특산물이 많은 고장임. 또한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내 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간 연계성 제고에 유리

3) 2021 충남 사회지표 시군편·종합편

- (단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각. 고령화 진전으로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성향 등 자신감 결여되어 있음
- (기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주말 휴양 최적지로 부상(공주, 서천 고속도로와 대전, 당진 고속도로 개통).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위협)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구 및 경제의 이탈현상 가속화 우려. 여가·관광 패턴의 변화에 부응한 각종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가중. 지역활성화의 오용·남용 우려



<그림> 청양군 SWOT 분석 (출처 : 2015청양군 종합발전전략)

- 2021 충남사회지표에 따르면 충남에서 여가활동 만족도 비율이 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청양 역사,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이 많음). 먹거리 안전의식도 60%로, 전국과 충남(40%대) 대비 높음

5) 주요 의제

- (2018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결과) 참석자 비율 남성 70 : 여성 30. 60대 이상이 42%. 세대별·성별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 아쉬운 부분은 의료시설, 교통, 문화 부족. 이기주의, 텃세, 다양성 부족. 만족하는 부분은 청정 자연환경, 다양한 지원정책

<그림> 2018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결과 - [참여자 의견 분석]

*언급량이 많은 순

아쉬운 부분	만족하는 부분
1. 취약한 의료시설	1. 청정 자연환경
2. 불편한 교통 시스템	2. 좋은 인심
3. 부족한 문화 여건	3. 다양한 지원정책
4. 청년이 살 수 있는 여건	4. 만족스런 교통망
5. 보육·교육 환경	5. 조용한 환경
6. 이기주의	6. 변화 가능성
7. 인구 감소	7. 적은 교육비
8. 경제활동 선택의 폭 적음	8. 문화 향유 여건
9. 활력 부족	9. 복지망
10. 축사 악취	10. 신속한 제설 작업
11. 기반시설 불비	11. 관계 맺기가 쉬움
12. 지역 편차가 큼	12. 고향 이미지
13. 텃세가 있음	13. 농업 차별화
14. 규제 과다	14. 도시에 대한 접근성
15. 다양성 부족	15. 풍부한 인적 자원
16. 비싼 물가	16. 생활비 저렴
17. 정보 취득의 어려움	17. 나를 드러내서 말할 때 효과가 있다
18. 자연 훼손	18. 좋은 자리가 많다
19. 짧은 해	19. 물 부족의 해결
20. 사각지대	
21. 노인 자살률 최고	
22. 브랜드 활성화 홍보 미흡	
23. 재배단지 관리 미흡	

- 세수 확보가 낮기 때문에 실험적인 국가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지원정책이 많음(농민지원, 귀농, 보조사업 등)
- (202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응답자 400명. 군민 우선투자 분야 1순위 교육(24%), 2순위 복지보건(28%)이라 응답. 공무원은 1순위 복지보건(23.4%), 2순위 교육(20.7%)라 응답

• (주거)

- 2021 충남사회지표에 따르면, 청양군 주거환경 및 환경체감도(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쇼핑 시설, 기반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도 평균 수준에 비해 높고, 특히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타 시·군 대비 가장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상	우선 투자 분야			
	군민	1 순	교육(24%)	2순위
공무	1 순	복지·보건(23.4%)	2순위	교육(20.7%)

<그림>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복지)⁴⁾

- 2021 충남사회지표에 따르면, 청양군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장애인 인구 3333명), 여성복지, 정신요양, 노숙인 시설 미흡(노인복지 시설 7개)
- 청양군은 종합병원이 없고 보건진료소가 많음. 천안이나 대전 지역의 종합병원까지 평균 1시간 30분 시간이 소요됨
-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 2019년 유치 및 시행(생활편의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문의료, 재가 의료급여 신설, 맞춤형 운동처방, 인지 재활사업, 마을 주치의 사업, 케어택시 의료기관 이동 지원, 영양 보충 식사 배달, 사물인터넷 활용한 안심 서비스)
- 고령자복지주택(국토부 공모사업) 127세대 규모 영구 임대주택 착공(1-2층 의료시설과 식당, 복지업무 담당 행정기관, 3층 주거시설·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이루어질 예정)
- 가족문화센터(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 청소년상담복지) 착공(2024년 완공) 및 청소년재단 2021년(청소년 활동 진흥사업, 직업 학교 연계 진로체험, 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출범
- 2021년 남양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젊은 엄마를 중심으로 어린이방, 코노, 카페, 회의실, 강당, 헬스장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

- 2021 충남사회지표에 따르면 청양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장학금 지원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정비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가 각각 19.9%로 가장 높음

5) 출처 : 청양신문, 충청투데이

• (청년)⁵⁾

- 2018년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양군 청년들이 ①지역의 폐쇄성(52.5%), ②사생활 노출(23.8%), ③세대 갈등(10.9%), ④가치관 차이(9.9%)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 청양 청년들은 주말에 실내 활동(TV시청·휴식·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음. 주로 TV시청(30.5%), 휴식(17.9%)임. 외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가시설 부족(40.0%), 시간부족(27.7%), 경제적 부담(15.4%), 정보부족(9.2%)을 선택. 여가활동을 위해 군시설 적극 이용하지 않음
- 2020년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5년 후 희망하는 청양의 모습에 대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청양’이 6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여건 우수한 청양’이 33.1%,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 청양’ 28.2%로 나타남
- 청년정책 만족도에서 일자리 정책은 32.0%인데 반해 청년 교육정책 18.8%, 청년 문화·여가 정책 17.3%로 저조
- 청년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청양 청년인구 수 6519명으로 인구의 21%차지. 천안 40%, 아산 37%, 서산 당진 32%에 비하면 낮은 수준). 청양군 청년은 절반 넘게 이주해서 왔음
- 청년들이 희망하는 공간은 청년 간 교류공간 155명(45.5%), 창업공간 153명(44.9%), 청년교육공간 77명(22.6%), 휴식과 놀이공간 75명(22%), 문화예술창작공간 73명(21.4%) 순으로 응답함

<그림> 5년 후 희망하는 청양

구분	1선택		2선택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좋은 일자리가 많은 청양	163	47.8	56	16.4	219	64.2
농림어업이 발달한 청양	21	6.2	21	6.2	42	12.3
교육여건이 우수한 청양	42	12.3	71	20.8	113	33.1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 청양	43	12.6	53	15.5	96	28.2
창업과 기업하기 좋은 청양	30	8.8	58	17.0	88	25.8
자연과 환경이 깨끗한 청양	17	5.0	24	7.0	41	12.0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청양	14	4.1	42	12.3	56	16.4
기타			1	0.3	1	0.3
무응답	11	3.2	15	4.4	26	7.6
전체	341	100.0	341	100.0	682	200.0

5) 출처 : 2018, 2020 청양군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2.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 청양군 비전은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로 5대 군정목표로와 5대 공약분야로
 △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마련 △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 △ 최고 수준 건강 100세 복지모델
 창출 △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 △ 주민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중임



<그림> 청양 민선 8기 비전 (출처 : 청양군청 홈페이지)

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현황

- 청양군 자치법규는 현행 총 390개의 조례, 109개의 규칙 등이 있으며, 그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12월 제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18년 9월 제정),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2020년 12월 제정)가 있음
- 그 외에 유사한 자치법규로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20년 12월 15일 제정)가 있음

<표>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례

조례명	담당	제정일자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	2020.12.15.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농촌공동체과	2018.09.20.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통합돌봄과	2020.12.15.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통합돌봄과	2020.12.15.

①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일자 : 2020년 12월 15일(사회적경제과)
- 목적 : 이 조례는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표>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주요내용
제16조 재정지원	① 사회적경제 자립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 ②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부조, 공동사업 촉진 위해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제17조 우선구매	① 청양군의 보조금 지원받는 기관, 단체와 공사, 출자, 출연기관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조치 가능
제18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①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 부여할 수 있음
제19조 민간기업 등 참여 확충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일자 : 2018년 09월 20일(농촌공동체과)
- 목적 : 이 조례는 청양군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표>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조항	주요내용
제7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③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 제정 일자 : 2020년 12월 15일(사회적경제과)
- 목적 :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표>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항	주요내용
제2조 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또는 경비 지원 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주거지원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재가 돌봄·요양서비스 제공 위한 사업, -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 사업

2)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 2020년 제정된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주요 내용은 △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 경영지원 △ 교육 및 훈련 지원 △ 재정지원 △ 우선구매 등 지원 △ 민간위탁 사업 참여 장려 △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 홍보 등임
- 청양군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선 7기의 공약 사항의 실행 여부와, 2021 주요 업무계획, 2021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했음

① 민선7기 관련공약 추진현황

5-3 주민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완료 시점 구분		신규사업 여부		예산구분		전체 이행률	
임기 내	임기 후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40%	
○			○	○		2018년 이행률	
중앙정부의 도움			사업주체(사업권한)			80%	
제도	재정	권한	국가	도	군(자체)	민간	추진 단계
	○				○		추진중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중용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2336)		담당자 정영선(☎2337)		

□ 정책목표

○ 현황

- 주민 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정책목표

- 주민참여형 행복한 주민기업 육성으로 농촌자원 활용 극대화 실현

□ 정책개요

○ 주요내용(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환경 구축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농촌공동체 활력화 사업 추진으로 사회문제해결 및 행복공동체 조성
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개정, 창업지원 교육센터를 통한 창업인프라 조성

○ 소요예산 : 2,014백만원(국비 1,510 도비 150, 군비 354)

□ 연차별 중점 추진계획(과제)

기 간	추진계획	이행률 (누적, %)	비고
입 기 내	2018년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개정 - 사회적경제 달빛마켓 추진 및 연찬회 개최 -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 실시	40	
	2019년	50	
	2020년 - 사회적경제기업 연 2개소 육성 - 창업지원 교육센터 기반구축사업 추진	70	
	2021년 - 청양 사회경제네트워크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실시(연 2회)	90	
	2022년	100	

□ 연도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회적경제 조례 개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창업지원교육센터 조성																		

- 청양군 사회적경제와 연계되는 과로는 농촌공동체과, 미래전략실,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사회적경제과가 있음
 - 농촌공동체과 : 주민자치, 사회혁신, 농촌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역활성화재단, 푸드플랜, 공공급식
 - 미래전략실 :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수당 지급, 청년축제, 인구정책, 청년정책
 - 통합돌봄과 : 커뮤니티케어, 노인인구 문화 및 교육서비스, 노후 소득보장
 - 문화예술과 : 지역축제(장승, 칠갑문화제), 도서관, 백제문화체험관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 및 공모사업, 사회적경제 육성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 및 시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연계사업
- 2021년 추진현황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재정지원
 -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민관협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 각종 공모사업 발굴

2021년도 청양군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현황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유도 및 전문인력으로 양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차년도)	신축 및 운영주체 확립에 따른 프로그램 및 입주기업 요건 논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청양군 사회적경제 종합적·체계적인 활성화 정책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진입교육 컨설팅	진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육성 확대
	사회적기업 창업멘토링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육성 및 자립 도모
민관협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주민(청소년) 교육 활성화로 주민이해 및 참여확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학습동아리 운영	민·관·산·학·연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역활성화재단 사회적경제팀 협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모두 만족하는 사회적경제 구현
	달빛마켓 활성화사업(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각종 공모사업 발굴	청년 협동조합연합회 구성 및 지원(안)	관내 청년협동조합 조직화로 맞춤형 청년수요 사회적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② 청양군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⁶⁾

- 청양군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중앙단위, 광역단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등). 이 외에도 연관정책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설립 사업 등이 있음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2020년에 청양이 사업지로 선정되며 280억 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 됨. 충남혁신타운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물 단순 가공을 넘어서는 '사회적기업의 생산·가공·유통'을 통합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조성 필요에 따라 조성하게 됨.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구축과 통합지원 체계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혁신타운 네트워크 구축, 혁신타운 활성화사업(네트워킹 프로그램), 혁신투어로드, 사회주택 및 셰어하우스 운영, 공유모빌리티와 같이 지역사회 상생협력 활성화에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충남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사업은 충남 균형발전계획 사업으로 총 180억의 사업비가 투입 됨.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동거점 마련임. 고추문화마을 활용도를 제고해 이전에 조성했던 인적자원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푸드문화체험관, 사회적농장, 청량한스테이, 숲 놀이터와 숲 길, 사회적경제조직 실험실과 공방 등의 공간 운영 예정이며 청양군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6) 출처 :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 청양군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 청양군은 2021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2022-2026)을 수립했음.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조직 발굴 및 육성 △물적 제도적 기반구축 △교육과 인식확산 △사회적경제 협력 체계 구축으로 나눠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은 네가지 활동으로 나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연관 부서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운영 △혁신타운 연계협력 체계 구축 활동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음
-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2022-2026)에서는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주체를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청년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있음. 또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02 | 성과목표와 추진주체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VIII. 계획의 추진과 실행

●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추진 주체

		주요추진주체
조직 발굴 및 육성	① 사회적경제 발굴과 인큐베이팅 지원	민간, 자원기관
	②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보육, 육성지원 도입	자원기관
	③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지원	자원기관
	④ 사회적경제 활동 모니터링과 성과 확산	자원기관
물적·제도적 기반구축	①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위한 기반조성	공공
	② 사회적경제 활동공간 구축	공공
	③ 공공 및 민간시장의 판로개발과 확대	자원기관
	④ 사회적경제 공공주체 역량 및 지속성 강화	공공, 자원기관
교육과 인식확산	① 지역주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지원	자원기관
	②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공공, 민간
	③ 미래세대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체계 마련	공공, 자원기관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①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
	②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공공
	③ 청양군 연관 부서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운영	공공, 자원기관
	④ 혁신타운 연계협력 체계 구축	공공, 민간

84

● 추진단계: (4영역)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형성단계		발전단계		확산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①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 네트워크 연대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융복합 사업지원(농촌, 청년)		
②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확대 운영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 확대 운영		
	청양군내 정책협의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③ 연관 부서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운영	혁신타운 연계협의회 구축 운영				
④ 혁신타운 연계협력 체계 구축	혁신타운 지역연계사업 참여주체 발굴 지원				

- 올해 5개년 계획을 토대로 15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투자할 예정임. 올해 주요 사업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경진대회(전국)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 SNS 소통 채널 신설 △칠갑마루 온라인 소포몰 입점 지원 △액션그룹 연계 현장지원단(법률, 노무, 회계 등) 구성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사회적경제 단계별 아카데미 운영 △'달빛마켓' 지원 △'사회적 경제인의 날' 행사 개최가 있음

04 | 협력체계 구축

Ⅶ. 정책의 세부 실천사업

● 세부 정책과제 조서

4-1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 • 사회적경제는 경영역량 취약성과, 영세성, 규모의 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전략이 필수적으로 활용

세부내용 | ①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네트워크 조직 대상 회원사 관리 및 상호교류활동 수행, 민간협치활동 등의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조직의 인건비 재정지원 방안 마련

② 사회적경제 융복합 정책사업 개발·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융복합 정책사업 개발과 운영 추진(지역문제 해결활동, 청년대상 사회혁신활동)

실행주체 |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소요예산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민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200	-	50	50	50	50
	지역문제해결 융복합 공모사업	120	-	-	40	40	40
	청년 사회혁신 융복합 공모사업	120	-	-	40	40	40
	총사업비	440	-	50	130	130	130

70

04 | 협력체계 구축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Ⅶ. 정책의 세부 실천사업

● 세부 정책과제 조서

4-2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추진배경 | •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은 공공중심보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협력적 체계가 필수적

세부내용 | ①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확대 운영

- 현재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승격하여 위상 확대
-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정책영역별 전문가 포함하여 확대하고 판로개발 확대, 교육컨설팅, 정책기획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② 청양군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 운영

- 공무원, 중간지원기관, 네트워크조직, 협력기관 등 청양군 사회적경제 정책조직들의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운영

실행주체 | 청양군 사회적경제팀

소요예산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육성위원회 확대 운영	200	40	40	40	40	40
	실무협의회 확대 운영	90	18	18	18	18	18
	총사업비	290	58	58	58	58	58

71

2.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⁷⁾

1)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본 현황(51개소)

- 청양은 인구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계룡(12개), 부여(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음(51개). 하지만 인구대비 적은 숫자는 아님. 청양군에서 사회적경제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는 사회적경제팀임

(1) 사회적경제조직 기초 현황(2021년 12월 기준)

- 2021년 12월 기준 설립된 청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51개이며, 사회적기업 6개(인증 2개, 예비 4개), 마을기업 13개(인증), 협동조합 31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 자활기업 1개임
- 청양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중 일반협동조합 유형이 가장 많음
- 청양군 협동조합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3개로 2020년 20개와 비교해서 65% 증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2021년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함

<표>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초현황

구분	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협동조합
2021년	51개소	6개소	11개소	2개소	1개소	31개소

(2) 청양 사회적경제조직 업력·업종 비율 현황(2021년 12월 기준)⁸⁾

<표> 청양군 사회적경제 업력·업종 비율 현황

구분	구분	기업수	비중
업력	11년 이상	1	3.1%
	7-10년 이하	13	40.6%
	3-6년 이하	8	25%
	2년 이하	10	31.3%
업종	농·축산·어·임·광업	8	25.0%
	제조업	6	18.8%
	도·소매 유통	3	9.4%
	요식업	1	3.1%
	문화·예술	4	12.5%
	교육·보육	2	6.3%
	보건·복지·건강	1	3.1%
	청소·환경·재활용	2	6.3%
	기타	5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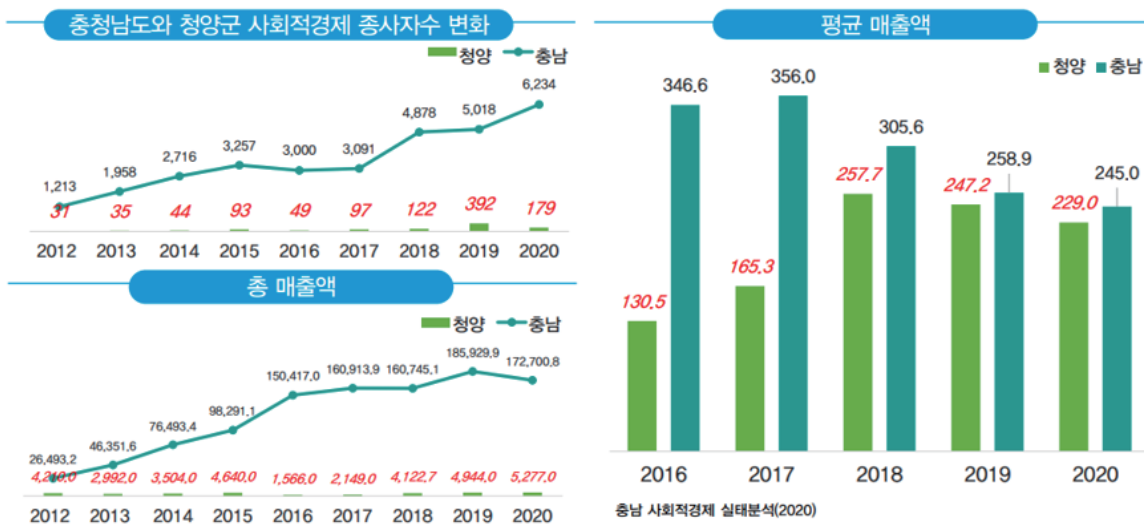
7)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 연구(2021)

8) 출처 : 충남 사회적경제 설문조사(지역별 통계) 2021.12.

- 청양 사회적경제조직은 업력이 6년 이하인 조직이 과반수(57.3%)임. 7년 이상 조직 비율도 43.7%로 낮지 않음
- 업종으로는 농·축산·어·임·광업이 가장 많고(25%) 그 다음 제조업(18.8%), 기타(15.6%)가 이룬다

(3) 청양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규모 현황⁹⁾

-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20년 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은 2020년 기준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 (기업 증가 수에 비해 총매출액 증가는 크지 않음.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 2021년 당진시의 평균 매출액은 5.1억, 천안시는 4.2억원, 논산시는 4.1억)
-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업의 연도별 평균 2016년 1.3억원에서 2020년 현재 2.3억원 규모로 증가
- 청양군 사회적경제 종사자 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감소했음. 충남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다르게 청양은 감소했음



- 2021년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양의 영업이익은 최하위이고 당기순이익은 세 번째로 낮음. 청양군의 규모가 적고 인구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됨

9)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 연구(2021)

[표 3-17] 2021년 영업이익(추정치)

(단위 : 백만원, %)

구분	1백만원 이하	1백1~3백만원	3백1~6백만원	6백1~1천만원	1천1~3천만원	3천1~5천만원	5천1백만원 이상	기타	평균	합계	
전체	26.2	19.5	11.5	7.7	15.9	4.1	5.5	9.7	15	12,207	
기업소재지	천안시	35.4	19.7	6.1	5.4	11.6	1.4	10.2	10.2	20	2,610
	공주시	45.9	17.6	5.9	3.5	5.9	-	2.4	18.8	3	180
	보령시	18.8	10.4	8.3	6.3	29.2	14.6	4.2	8.3	24	105
	아산시	11.4	19.0	20.0	15.2	20.0	4.8	7.6	1.9	18	1,844
	서산시	5.1	19.0	17.7	13.9	30.4	6.3	3.8	3.8	15	1,128
	논산시	23.1	25.6	15.4	2.6	23.1	-	10.3	-	18	718
	계룡시	-	22.2	-	11.1	44.4	-	11.1	11.1	38	305
	당진시	32.0	9.3	2.7	6.7	5.3	-	6.7	37.3	29	1,377
	금산군	8.7	39.1	23.9	13.0	10.9	2.2	2.2	-	7	319
	부여군	28.6	28.6	8.6	2.9	14.3	11.4	2.9	2.9	14	481
	서천군	51.9	13.0	9.3	3.7	3.7	7.4	7.4	3.7	14	732
	청양군	40.6	31.3	6.3	3.1	9.4	-	3.1	6.3	1	24
	홍성군	14.3	25.0	19.6	8.9	23.2	7.1	1.8	-	10	551
	예산군	45.1	15.7	7.8	5.9	5.9	3.9	3.9	11.8	9	405
태안군	6.1	14.3	16.3	8.2	32.7	6.1	-	16.3	12	485	

[표 3-18] 2021년 당기순이익(추정치)

(단위 : 백만원, %)

구분	100만원 이하	101~500만원	501~1천만원	1,001~5천만원	5,001~1억원	1억 1백만원 이상	기타	평균	합계	
전체	33.8	25.6	9.8	17.0	1.8	2.4	9.6	10	7,962	
기업소재지	천안시	44.9	18.4	4.8	14.3	2.7	4.8	10.2	16	2,057
	공주시	61.2	12.9	4.7	2.4	-	1.2	17.6	-1	-62
	보령시	18.8	18.8	12.5	37.5	-	4.2	8.3	21	925
	아산시	19.0	32.4	18.1	21.9	3.8	2.9	1.9	15	1,568
	서산시	11.4	35.4	17.7	29.1	2.5	-	3.8	10	759
	논산시	30.8	33.3	5.1	20.5	2.6	7.7	-	15	601
	계룡시	11.1	11.1	33.3	22.2	-	11.1	11.1	30	240
	당진시	34.7	10.7	5.3	6.7	2.7	1.3	38.7	-5	-222
	금산군	10.9	65.2	13.0	10.9	-	-	-	5	216
	부여군	34.3	31.4	2.9	25.7	-	2.9	2.9	12	418
	서천군	66.7	9.3	7.4	7.4	1.9	3.7	3.7	9	470
	청양군	53.1	25.0	9.4	6.3	3.1	-	3.1	-1	-35
	홍성군	21.4	41.1	10.7	26.8	-	-	-	6	353
	예산군	52.9	19.6	3.9	7.8	2.0	2.0	11.8	7	321
태안군	8.2	30.6	16.3	28.6	-	-	16.3	9	353	

- 청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은 규모에 비해서, 또한 타지역에 비해서 자산은 높은 편임. 천안, 당진, 논산에 이어 네 번째로 자산 평균이 높음. 하지만 평균값이 높기 나온 데는 매출액이 높은 일부 조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표 3-15] 2021년 자산 총계(추정치)

(단위 : 백만원, %)

구분	2천만원 이하	2천1~5천만원	5천1~1억원	1억1~3억원	3억1~6억원	6억1백만원이상	기타	평균	합계	
전체	44.6	22.1	14.6	11.3	3.2	3.2	1.0	116	104,108	
기업 소재지	천안시	43.5	17.0	17.7	7.5	7.5	6.8	-	168	24,688
	공주시	45.9	21.2	9.4	11.8	-	2.4	9.4	65	5,016
	보령시	37.5	20.8	22.9	14.6	2.1	2.1	-	83	4,003
	아산시	33.3	36.2	18.1	6.7	1.9	3.8	-	87	9,130
	서산시	57.0	17.7	10.1	11.4	1.3	2.5	-	74	5,850
	논산시	46.2	23.1	12.8	10.3	-	7.7	-	125	4,894
	계룡시	22.2	22.2	33.3	22.2	-	-	-	73	653
	당진시	53.3	8.0	5.3	20.0	8.0	5.3	-	345	25,840
	금산군	43.5	37.0	13.0	4.3	2.2	-	-	44	2,047
	부여군	45.7	20.0	31.4	2.9	-	-	-	37	1,286
	서천군	48.1	16.7	13.0	20.4	1.9	-	-	67	3,603
	청양군	37.5	25.0	12.5	15.6	-	6.3	3.1	111	3,440
	홍성군	42.9	28.6	12.5	14.3	1.8	-	-	65	3,624
	예산군	62.7	11.8	13.7	5.9	3.9	2.0	-	103	5,259
태안군	30.6	32.7	14.3	16.3	6.1	-	-	97	4,776	

[표 3-75] 근로자 평균 근무기간

(단위 : %)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8.7	7.6	19.1	19.1	15.6	29.9	
기업 소재지	천안시	13.6	8.8	29.3	31.3	10.2	6.8
	공주시	17.6	9.4	25.9	8.2	9.4	29.4
	보령시	6.3	6.3	14.6	25.0	10.4	37.5
	아산시	8.6	5.7	18.1	21.9	17.1	28.6
	서산시	-	3.8	11.4	17.7	16.5	50.6
	논산시	2.6	5.1	5.1	2.6	15.4	69.2
	계룡시	22.2	-	44.4	22.2	-	11.1
	당진시	8.0	16.0	29.3	28.0	10.7	8.0
	금산군	4.3	6.5	10.9	34.8	17.4	26.1
	부여군	8.6	2.9	14.3	11.4	17.1	45.7
	서천군	7.4	11.1	40.7	9.3	22.2	9.3
	청양군	18.8	21.9	9.4	3.1	18.8	28.1
	홍성군	-	3.6	7.1	16.1	28.6	44.6
	예산군	15.7	5.9	7.8	15.7	2.0	52.9
태안군	-	-	6.1	10.2	40.8	42.9	

- 또한 유급종사자 수 편차도 큰 편인데 2명 이하가 84.4%, 11명이상이 6.3%로 태안, 금산에 이어 2명 이하 고용비율이 세 번째로 높음. 반면 5-6명, 11명이상 고용비율은 각각 9.4%, 6.3%로 전체 평균(6.8%, 5.4%)보다 높음. 또한 근로자 평균 근무기간도 편차가 큰 편인데 6개월 미만 근로가 40%로 전체평균(16.3%)보다 높은 편임
- 조직의 규모, 자산, 근로자 업력의 차이가 큰데 청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공헌 지출비용도 편차가 큰 편임. 100만원 이하가 87.5%로 공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임

[표 3-68] 사회공헌 지출비용(2022년 추정치)

(단위 : %, 백만원)

구분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평균	
전체	63.7	11.3	6.4	0.7	6.7	11.2	3.8	
기업 소재지	천안시	55.8	10.2	10.9	1.4	9.5	12.2	4.2
	공주시	91.8	2.4	-	-	3.5	2.4	2.0
	보령시	45.8	16.7	6.3	-	12.5	18.8	4.6
	아산시	53.3	7.6	11.4	1.0	12.4	14.3	4.8
	서산시	64.6	19.0	3.8	1.3	3.8	7.6	3.9
	논산시	76.9	7.7	5.1	-	-	10.3	4.1
	계룡시	77.8	11.1	-	-	-	11.1	4.0
	당진시	49.3	14.7	10.7	1.3	4.0	20.0	5.6
	금산군	39.1	21.7	10.9	-	13.0	15.2	4.6
	부여군	54.3	25.7	2.9	-	5.7	11.4	2.8
	서천군	88.9	-	1.9	-	1.9	7.4	2.6
	청양군	87.5	-	-	3.1	-	9.4	2.2
	홍성군	73.2	10.7	3.6	-	1.8	10.7	3.3
	예산군	66.7	11.8	5.9	-	7.8	7.8	3.2
태안군	59.2	18.4	4.1	-	10.2	8.2	3.6	
법인 설립일	11년 이상	36.4	4.5	-	-	9.1	50.0	13.4
	7년 이상~10년 이하	56.0	11.9	7.0	0.6	6.4	18.0	5.9
	3년 이상~6년 이하	64.6	12.0	7.9	0.7	8.4	6.4	2.7
	2년 이하	81.8	9.1	1.9	0.6	2.6	3.9	1.1
사회적 경제 유형	사회적기업	35.6	11.7	8.0	1.1	12.2	31.4	10
	마을기업	72.0	11.2	8.0	-	4.8	4.0	1.5
	협동조합	70.9	11.2	5.5	0.7	5.4	6.4	2.4

(2) 중간지원조직 현황

<표> 청양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합계	당사자네트워크	청양협동조합연합회	충남지역자활센터	지역활성화재단
4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2020년 설립되어서 청양군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팀(조직발굴 육성, 유통판매, 협력시스템 구축)이 있음
- 청양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음. 지자체는 대체로 평균값과 비슷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사회적경제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평균(3.96점)보다 낮은 점수(3.25점)를 보임.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낮았는데 취지와 목적 이해 부분(3.91점, 충남 평균은 4.02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3.78점 충남 평균 4.07점)가 평균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임

[표 4-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지원기관은 사회적 경제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성을 보유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정보와 내용에 대해 만족	지원기관의 업무처리 속도와 피드백에 대해 만족	지원기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성실하고 친절	지원기관은 해당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전체	4.02	3.96	4.07	3.87	3.88	3.89
기업 소재지	천안시	4.15	4.07	4.13	3.86	4.00
	공주시	3.94	3.86	3.89	3.74	3.91
	보령시	3.96	4.08	4.10	3.42	4.00
	아산시	4.02	4.01	4.02	3.93	4.00
	서산시	4.15	4.13	4.38	4.23	3.77
	논산시	3.85	3.56	3.87	3.79	3.90
	계룡시	3.89	3.89	3.33	4.00	3.78
	당진시	4.13	4.08	4.00	3.83	4.08
	금산군	3.83	3.65	3.76	3.63	3.83
	부여군	3.97	3.91	4.26	3.86	4.00
	서천군	3.96	3.91	3.70	3.81	3.67
	청양군	3.91	3.94	3.78	3.78	3.75
	홍성군	4.09	4.02	4.27	4.04	3.59
	예산군	3.92	3.90	4.20	3.88	4.02
태안군	4.02	3.88	4.53	4.20	3.65	

2) 청양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현황

(1)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설립목적 :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상호부조의 협동정신과 인간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운동을 활성화하며, 상호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건설과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시기 : 2019.02.19.
- 회원현황 :
 사회적기업 2개, 예비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9개(단체 18개), 개인 16명
- 조직 연혁 및 주요 활동 :
 - 달빛마켓 운영
 - 넷짚이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 참여
 - 사회적 관광 코스 개발 및 달빛마켓 제품 콜라보 패키지 지원
- 2021년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수준은 평균보다 조금 낮음

[표 3-61] 지역사회 주체들(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매년 참여정도

(단위 : %)

구분	참여하지 않음	1회	2회~5회 미만	5회~10회 미만	10회 이상	
전체	8.8	28.9	48.7	11.4	2.2	
기업 소재지	천안시	3.4	37.4	44.9	12.9	1.4
	공주시	22.4	8.2	58.8	10.6	-
	보령시	10.4	54.2	35.4	-	-
	아산시	9.5	56.2	29.5	4.8	-
	서산시	-	7.6	68.4	20.3	3.8
	논산시	-	2.6	12.8	61.5	23.1
	계룡시	11.1	33.3	33.3	22.2	-
	당진시	2.7	17.3	61.3	16.0	2.7
	금산군	4.3	63.0	30.4	2.2	-
	부여군	25.7	40.0	34.3	-	-
	서천군	18.5	24.1	50.0	7.4	-
	청양군	9.4	37.5	46.9	6.3	-
	홍성군	-	7.1	76.8	14.3	1.8
	예산군	27.5	37.3	35.3	-	-
태안군	-	4.1	85.7	4.1	6.1	

- 2021년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에서 기대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59%),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관계 통한 매출 증대(37.5%)가 평균(각각 41%, 25.7%)로 높은 편임. 교류 및 친목활동은 6.3%로 전체 평균(13%)보다 낮음

[표 3-65]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대하는 사항

(단위 : %)

구분	교류 및 친목 활동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 관계를 통한 매출 증대	공동 R&D 등 협업 프로젝트 추진	당사자들의 의견 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	기타	
전체	13.0	41.0	25.7	6.4	10.4	3.5	
기업 소재지	천안시	8.8	34.7	23.8	9.5	22.4	0.7
	공주시	4.7	35.3	40.0	3.5	5.9	10.6
	보령시	12.5	64.6	18.8	-	4.2	-
	아산시	19.0	49.5	20.0	1.0	10.5	-
	서산시	26.6	31.6	27.8	8.9	3.8	1.3
	논산시	17.9	64.1	12.8	-	5.1	-
	계룡시	11.1	44.4	22.2	11.1	-	11.1
	당진시	1.3	22.7	18.7	25.3	28.0	4.0
	금산군	17.4	45.7	32.6	-	4.3	-
	부여군	5.7	51.4	25.7	-	17.1	-
	서천군	11.1	40.7	31.5	1.9	1.9	13.0
	청양군	6.3	50.0	37.5	-	-	6.3
	홍성군	28.6	17.9	33.9	19.6	-	-
	예산군	9.8	62.7	19.6	-	7.8	-
태안군	12.2	38.8	20.4	2.0	10.2	16.3	

(2)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 설립목적 : 조례 근거
- 육성위 역할 : 사회적경제 육성, 경제조직 지원·활성화(협업체계구축사업 참여,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방문 체험, 사회적 경제인의 날 행사 개최, 칠갑마루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음
- 육성위 위촉기간 : 2021.01.01.~2022.12.
- 위촉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계		14명(당연직 4·위촉직 9)	
당연직 (4)	위원장	청양군 부군수	김윤호
	위원	청양군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위원	청양군 미래비전전략과장	구정서
	위원	청양군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위촉직 (10)	위원	청양군의회의원	한미숙
	위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강윤정
	위원	충남 연구원 인사복지과장	박춘섭
	위원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상완
	위원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장	황은하
	위원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노승복
	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반 사무국장	정희택
	위원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영혜
	위원	백제에프엔비영농조합대표이사	신영숙
위원	청아름협동조합대표이사	명덕재	

3) 청양군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¹⁰⁾

(1)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① 코로나19 타격 크고, 대응도 적극적

- 청양군은 충남 전체와 비교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 또는 휴업 고려 여부가 높고 고용조정 규모도 높은 편임. 구조조정 없이 극복할 계획이 71.9%로 전체 평균(83.1%)보다 낮고 금산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임. 또한 고용조정 규모도 해당 없음이 50%로 충남 전체에서 가장 낮은 비율임. 50% 이상 감원이 전체 평균보다 높음

10) 2021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종합) 보고서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 청양군은 충남 평균과 비교해서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성을 체감하는 비율(84.4%)로 평균(58.7%)보다 높음. 또한 코로나19 재정 악화 대처를 위해 취한 조치도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는데 정부재정지원책신청(56.3%, 평균 21.5%), 생산중단(56.3%, 평균 16.8%)이 높은 편임

[표 3-36] 2022년 내에 폐업 또는 휴업 고려여부

(단위 : %)

구분	폐업을 고려하고 있음	휴업을 고려하고 있음	2022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폐업을 생각하고 있음	일시적 휴업상태임	구조조정 없이 극복할 계획임	
전체	4.1	4.8	5.4	2.6	83.1	
기업 소재지	천안시	4.1	2.0	8.8	6.1	78.9
	공주시	3.5	7.1	1.2	1.2	87.1
	보령시	2.1	2.1	-	4.2	91.7
	아산시	8.6	1.0	4.8	1.0	84.8
	서산시	-	3.8	1.3	1.3	93.7
	논산시	10.3	7.7	5.1	2.6	74.4
	계룡시	-	11.1	11.1	-	77.8
	당진시	2.7	2.7	10.7	4.0	80.0
	금산군	4.3	10.9	13.0	-	71.7
	부여군	5.7	-	2.9	-	91.4
	서천군	5.6	13.0	5.6	3.7	72.2
	청양군	3.1	9.4	12.5	3.1	71.9
	홍성군	-	7.1	5.4	-	87.5
	예산군	7.8	-	-	2.0	90.2
태안군	-	10.2	2.0	4.1	83.7	

[표 3-37] 고용조정 규모(2021년 10월 근로자 기준)

(단위 : %)

구분	10-30% 감원	30-50% 감원	50-70% 감원	70-90% 감원	100% 감원	해당없음	
전체	2.4	3.0	6.0	1.3	2.6	84.6	
기업소 소재지	천안시	3.4	0.7	1.4	-	0.7	93.9
	공주시	1.2	3.5	15.3	7.1	5.9	67.1
	보령시	8.3	2.1	2.1	2.1	-	85.4
	아산시	3.8	5.7	8.6	1.0	4.8	76.2
	서산시	1.3	-	-	-	-	98.7
	논산시	-	7.7	2.6	2.6	-	87.2
	당진시	-	11.1	22.2	-	-	66.7
	금산군	4.0	2.7	-	-	4.0	89.3
	부여군	2.2	2.2	2.2	-	2.2	91.3
	서천군	-	-	5.7	-	2.9	91.4
	청양군	-	1.9	38.9	3.7	5.6	50.0
	홍성군	3.1	15.6	6.3	3.1	6.3	65.6
	예산군	1.8	3.6	1.8	-	-	92.9

② 지역과 관계 미약, 코로나19 이후 관계 맺기 노력

[표 3-42] 제품 및 서비스 목표 고객

(단위 : %)

구분	일반 소비자	조합원	지역주민	취약계층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전체	64.7	31.2	60.8	30.8	4.1	19.8	
기업 소재지	천안시	43.5	39.5	75.5	49.7	3.4	29.3
	공주시	51.8	57.6	76.5	36.5	9.4	18.8
	보령시	87.5	4.2	20.8	8.3	6.3	16.7
	아산시	88.6	8.6	44.8	25.7	1.0	2.9
	서산시	72.2	5.1	54.4	17.7	7.6	40.5
	논산시	87.2	53.8	76.9	43.6	2.6	2.6
	계룡시	33.3	33.3	44.4	44.4	11.1	11.1
	당진시	20.0	60.0	80.0	45.3	4.0	33.3
	금산군	63.0	67.4	52.2	45.7	-	2.2
	부여군	82.9	-	17.1	17.1	-	11.4
	서천군	87.0	72.2	66.7	46.3	3.7	7.4
	청양군	78.1	34.4	37.5	28.1	3.1	21.9
	홍성군	67.9	5.4	78.6	14.3	7.1	25.0
	예산군	72.5	3.9	47.1	13.7	2.0	11.8
태안군	65.3	14.3	75.5	-	2.0	30.6	

- 청양군은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으로 지역주민이 37.5%로 전체 평균(60.8%)보다 낮고 그에 반해 일반 소비자나 공공기관은 높은 편임. 구체적으로 해결 중인 사회문제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가 53.1%로 충남 전체 평균(26.4%)보다 높음. 또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도 46.9%로 평균 28.6%보다 높은 반면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은 평균보다 낮은 편임.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방식의 변화 필요'가 68.8%로 충남 전체 평균 35.5%와 비교 해서 높고 충남에서도 가장 높음.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도 75%로 충남 전체에서 가장 높고 평균 34%보다도 높음

③ 사회성과 평가 활성화에 관심

[표 4-3]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급한 개선사항

(단위 : %)

구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자금 지원 확대	전문지원 기관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확대	사회성과 (사회적 가치) 평가 활성화	기술개발 (R&D) 지원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전체	27.5	38.7	5.2	15.5	2.3	5.5	5.4	
기업 소재지	천안시	36.7	26.5	3.4	14.3	3.4	8.2	7.5
	공주시	9.4	25.9	15.3	42.4	1.2	2.4	3.5
	보령시	22.9	77.1	-	-	-	-	-
	아산시	53.3	44.8	-	1.9	-	-	-
	서산시	19.0	22.8	2.5	16.5	3.8	20.3	15.2
	논산시	71.8	20.5	-	7.7	-	-	-
	계룡시	11.1	11.1	-	77.8	-	-	-
	당진시	14.7	26.7	10.7	18.7	8.0	17.3	4.0
	금산군	78.3	19.6	-	2.2	-	-	-
	부여군	8.6	74.3	5.7	5.7	-	2.9	2.9
	서천군	5.6	48.1	13.0	29.6	1.9	1.9	-
	청양군	-	34.4	18.8	43.8	3.1	-	-
	홍성군	12.5	41.1	1.8	19.6	3.6	3.6	17.9
	예산군	11.8	82.4	2.0	-	-	-	3.9
태안군	22.4	46.9	4.1	2.0	4.1	6.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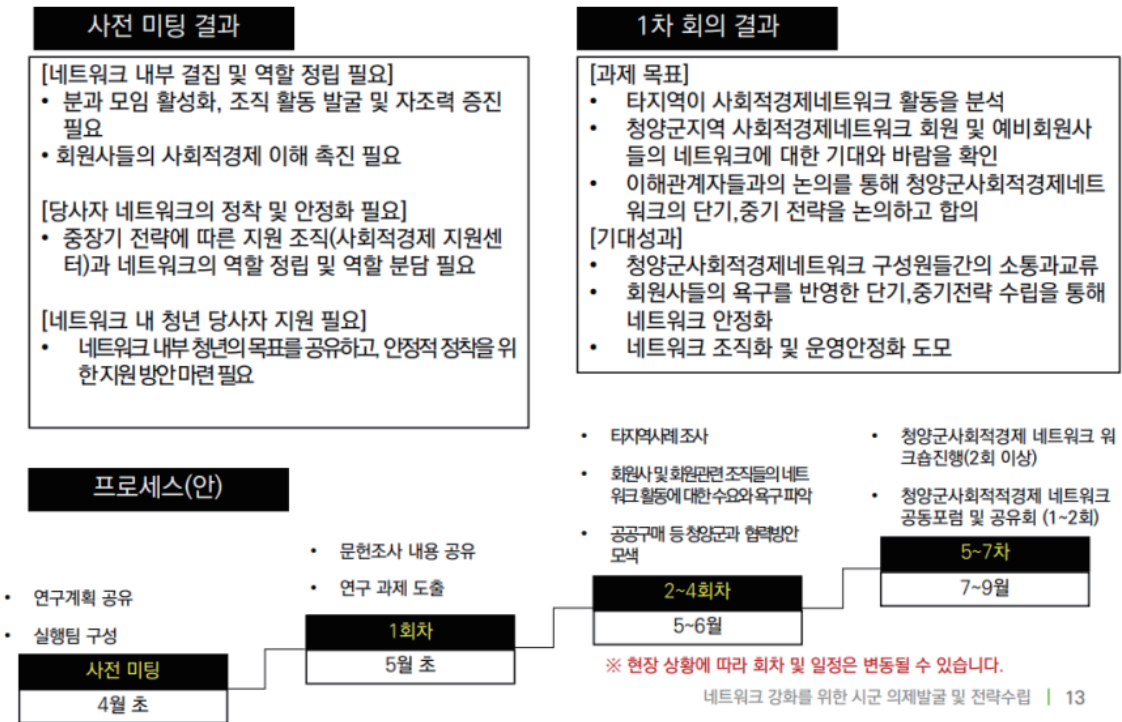
-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사회성과 평가 활성화’를 가장 많이 응답 (43.8%)했는데 전체 평균(15.5%)보다도 높고 충남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 진행 개요 및 참여자

(1) 과제 목표 및 전체 프로세스

〈청양군 : 사회경제 네트워크 중기 전략 수립〉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2) 실행 주체

연번	조직명	직책	이름
1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박영혜
2	정보리협동조합		최치희
3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홍민기
4	어쩌다로컬	대표	소철원
5	어쩌다로컬		김재동
6	어쩌다로컬		임수빈
7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오주아
8	나눔영농조합	대표	박영숙
9	청아름 협동조합	대표	명덕재
10	(주)이플아도	대표	허지혜
11	청양사람 협동조합	대표	이다정
12	청양사람 협동조합	대표	박소현
13	청양사람 협동조합	대표	이재영
14	꽃뫼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춘복
15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황준한
16	새울길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선호
17	농업회사법인(주)동강	대표	우공식
18	농업회사법인(주)동방	대표	김기홍
19	협동조합 품	대표	최재호
20	정보리협동조합	대표	전귀정
21	나무랑협동조합	대표	이광현
22	꽃피는산골 협동조합	대표	임득균
23	어슬티굿밤 협동조합	대표	김정옥
24	어슬티굿밤 협동조합	이사	김종길
25	청양친환경구기자	대표	성욱
26	청양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은진
27	가시나	대표	구민진
28	온직다원	대표	김기철
29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팀장	김우정
30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주임	양예지
31	청양군 사회적경제팀	주무관	김명선
32	청양군 사회적경제팀	주무관	박지현
33	청양군 사회적경제팀	팀장	김용태
3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리	오세민
35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강윤정
36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원	이경원
총			36 명

2) 회차별 진행현황

회차	일자 및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1회차	22. 5·3(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오주아, 박영숙, 명덕재 (청양군청) 김명선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연구 실행계획 및 진행 프로세스 공유 청양군 기초 문헌연구 결과 1차 공유 청양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과제 확인
2회차	22. 6·7(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허지혜, 이다정 (청양군청) 김명선, 박지현 (충남사경) 오세민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타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례 공유 네트워크에서 청년의 참여 사례 공유 회원사·비회원사 수요조사 공유 공공구매 관련 현황 공유
3회차	22. 6·20(월) 청양 휴양랜드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오주아, 박영숙, 허지혜, 박소현, 이춘복 (청양군청) 김명선, 박지현, 김용태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비회원사 조사내용 공유 공공구매 업데이트 공유 청사넷 과제 논의
4회차	22. 7·18(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최치희, 소철원,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청양군청)김용태 (충남사경) 강윤정 (연구진) 김유숙, 이경원	팀별 계획서 공유 팀별 계획서 논의 및 앞으로의 계획 공유
5회차	22. 8·12(금) 청양 알프스마을	박영혜, 최치희,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허지혜, 이재영, 김기홍, 전귀정, 이광현, 임득균, 김정옥, 김종길, 성욱, 김은진, 구민진, 김기철, 황준한 (재단)김우정 (청양군청)김용태 (충남사경)강윤정 (연구진)김유숙, 이경원	기존 논의내용 공유 기존 논의 구체화
6회차	22. 10·11(화) 청양 관광두레 사무실	박영혜, 홍민기, 소철원, 김재동, 임수빈, 오주아, 박영숙, 박소연, 김기철, 강태수, 명덕재 (재단)김우정 (청양군청)김용태, 박지현 (충남사경)강윤정 (연구진)김유숙, 이경원	사업 실행계획서 최종확정 및 분과구성 및 역할분담

3) 청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Ⅰ 3차 워크숍 결과

①민관협력(5명)	②지역사회 인식확산(4명)	③회원사 매출 향상(3명)	④연대·협력·협업·공동사업(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제 중심으로 소통·협의체 정례화 필요(토론편식, 정책협의회·맞춤형의제회의) - 민·관공동마당(의제발굴이나 법인화 과정 관련 논의) - 현장·청사넷에서 에너지 고갈 되기 전에 예산 확보가 보장 되어야 할 것 - 네트워크 참여 독려에 개인적 만남(술·차)으로 한계가 있음. 관을 매개로 참여 독려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조직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소통할 필요성 - 생활경제 밀착형으로 지역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나 판로 확대와 같이 회원사 들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빛마켓, 공공패키지, 사회관광투어 고도화를 통해 수익도 내고 홍보도 되면 좋겠음 - 달빛마켓 저변 확대 - 타지역 네트워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 해서 참고하고자 함 - 꼭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니더라도 협업할 수 있는 대상들 확장해서 섭외(달빛마켓 셀러, 지역 소상공인 등)
⑤청사넷 조직안정화(9명)	⑥네트워크 내 소통·교류 활성화(10명)	⑦지역자원 적극활용(1명)	⑧지역경제 순환(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의 지속가능성(회비, 재정구조, 회원모집, 의사결정, 이사회 관한 논의)논의 필요 - 청사넷이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국 안정화·체계화가 필요(매년 운영진 교체로 불안정한 상황) - 겸직이 아닌 독자적 사무국장 고용의 필요성(이사님의 도움 없이도 관·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과 운영 필요) - 달빛마켓 전용 상근활동가 필요 - 회원사 확보 경로 및 대상 다양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들간 민원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 (회원사들의 어려운점 네트워킹 통해 해결) - 청사넷이 '사회적경제의 집'과 같은 역할 해야(집에서 가족이랑 이야기하듯 고민·정보 교류하고 소통창구 역할해야) - 청사넷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힘 쉰 단체가 되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자주 나오는 구기자·맥문동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 청사넷에서 판매할 것을 제안 - 인적자원·물적 자원 발굴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고 싶음 (지역 젊은 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대상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의 사회적경제·청사넷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 - 사회적가치 생산(노동환경 개선, 자원 순환 효과)도 가능할 것

※1인당 3개 과씩 제선정한 결과(총 3개 과제 최종 선정)

조직안정화 (최치희, 홍민기, 박소현, 오주아, 김유숙 논의)	회원사·소통·교류 활성화 (박영숙, 소철원, 김명선, 김유숙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상근활동가 최소 2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세대교체의 필요성 - 네트워크 내에 달빛분과·사회관광분과·회원분과 구성해서 운영(분과장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 - 회비 인상에 대한 근거·타당성 마련 - 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수합해서 회원사에 제공 - 청년활동가 관련 지원금·타사업(신활력플러스사업) 정보 확보를 통해 유동적으로 인건비 확보 - 주민자치회 참석수당(회당 7만원) 참고 - [확정] 추후 회원 확보·회비 인상·외부자원요청·연계사업(인건비 확보)·자체수익사업(타지역네트워크 수익 사업 조사)·지역 일반 기업 후원요청·조직운영·역할분담·의사결정구조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 - [확정] 실행계획서 아닌 TFT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고민해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넷 내에 분과구성해서 분과별 월례회의 진행 - 청사넷도 주민자치회처럼 활동사진 활용해 보도자료 내보내고 홍보(달빛마켓 제로웨이스트, 환경보존 강조) - 청사넷 회비 낸 회원사 한정 현판 제작 - 회원사 간 구매 시 10%할인은 운영 세칙에 반영할 예정 - 네트워킹 파티 하는 경우 외부홍보·보도자료 제작할 것을 제안 - [확정] 그러나 추후 추가되거나 변동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파티(8명) ② 선배·청년기업 간 소통 장 마련(8명) ③ 회원사 간 제품 구매시 10% 할인(7명)
<p>☆최치희(분과장)☆ 이춘복, 박영숙, 박영혜, 허지혜, 이재영, 명덕재, 소철원, 김명선, 홍민기</p>	<p>☆박영숙(분과장)☆ 김재동, 이다정, 이영환</p>

4차 워크숍 결과

분과별 계획서 공유 및 앞으로의 과제

	계획서 내용	앞으로의 계획
<p>조직안정화 ☆최치희(분과장)☆ 이춘복, 박영숙, 박영혜, 허지혜, 이재영, 명덕재, 소철원, 김명선, 홍민기</p>	<p>재정구조 안정화 및 회원 확보 논의</p> <p>공간·인력·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팀장님과 협의해 보고자 함 (정기적 만남 계획)</p> <p>법인화 방식에 대한 논의</p>	<p>(회원사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만나고 방문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음 - 조직활성화가 중요하니 웬만하면 TF가 적극적으로 모여야 할 것 - 청사넷 내부에서 팀 나눠서 미가입 회원사 방문해보자 (10-11월 중)(확정) <p>(재정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반기업 후원 요청도 고려 <p>(조직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인력 부족할 경우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조직해서 역할분담해야 함 - 회원 확대와 더불어서 회비구조 안정화·재무구조 안정화 고민해야함 - 위탁·인건비지원·후원구조·회비구조 조사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움(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p>(조직안정화뿐 아니라 조직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네트워크 무엇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논의 필요 (미션에 대한 논의, 어떻게 누구랑 같이 할지) - 미래비전이나 미션에 대한 고민도 필요 - 네트워크 이사회 재정비 필요성 - 네트워크 이사회가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조직문화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계획서 내용	앞으로의 계획
<p>회원사·소통·교류 활성화 ☆박영숙(분과장)☆ 김재동, 이다정, 이영환</p>	<p>청사넷 회원 간 상호 거래(10% 할인 통해 교류 활성화·목표 30명, 1000만원)</p> <p>네트워크활성화 파티 - 연 6회 계획(마지막 6회차는 모두가 모이는 네트워크 파티·마지막 회차에서는 마니또나 핸드페인팅 같은 놀이 ·퍼포먼스 생각) -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준비, 지역언론에 홍보 - 상생로드투어 같이 참여 - 네트워크 청년들 중심· 주축으로 재미있게 준비</p> <p>멘토-멘티 격월에 한 번씩 선배 회원들이 청사넷 청년 초대해서 견학시켜주고 식사 대접하기)</p>	<p>사무국·네트워크 내 청년들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안(확정)</p> <p>(상호거래) - 하반기에 상호거래 참여회원 조사할 예정(9-10월) - 내년 총회 이후 회원사 지정 - 단독방에서 상호거래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 (노원 밀키트 카톡 완판 사례) - 단독에 상품 리스트업해서 구매여부 조사 (개인구매·단체구매·구매계획)(확정) - 상호거래 샘플링 :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회원사·비회원사 물건 품목을 조사해서 리스트업할 필요가 있음 (이를 기반으로 목표액 정해서 캠페인 형식으로 소화) - 총회 때 2개 이상 업체 상품·서비스 구매 약속해도 괜찮음 - 내부구매와 함께 크라우드펀딩도 가능할 것 같음</p> <p>(네트워크 파티) - 네트워크 파티 청년들(멘토-멘티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심·주축으로 재미있게 준비 - 연말·연찬회 비용으로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사무국에서 비회원사 초대해서 연결</p> <p>(멘토-멘티) - 멘토-멘티 그룹 리스트업해서 공유(사무국장이 담당·확정) - 청년그룹 인원이 적어서 사무국장이 골고루 만날 수 있게 매칭(확정) - 하반기에 2-3회 기획(확정). 한 멘티당 2명의 멘토 만나기 - 기업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상담해주는 형태 - 멘토가 식비 부담 - 네트워크에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달빛마켓 신생협동조합·준비팀들도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음</p>

	계획서 내용	앞으로의 계획
<p>회원사 연대·협력 ·협업·공동사업 ☆박영혜(분과장)☆ 최치희, 오주아, 소철원</p>	<p>(대전제조건)사무국 운영이 안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함 -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고자 함. 군 지원이 없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방향 고려 중</p> <p>(기존사업) - 달빛마켓 유지강화(사회적경제 참여 독려) - 사무국이 아닌 달빛마켓 운영위 조직해서 달빛마켓 운영 - 군 사업으로만 진행되지 않게 공모사업·지원사업 고려 - 추석 꾸러미 선물 기획(추후 가공 유통에 대한 허가, 디자인 등 구체화) - 상생투어 코스 확대하고 산업투어로 개발 해볼 예정 - 네트워크 공동사업에서 소외된 회원사 소환</p> <p>(신규사업) - 홍보·마케팅 지원사업(기업마다 홍보인력 없고 전문성이 떨어짐) - 전문 홍보 기업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공모예정 - 사회적경제 홍보관이나 편집샵 운영(현재는 관광두레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 사업공간 확보하려는 청년거리에 입주하면 청년들과 협업이 용이해질 것) - 청사넷 회원사 상품 브랜드·패키징 지원</p>	<p>- 공통적으로 회원사 조직화 필요(미가입 업체 방문해서 회원확대 하고 회원사 방문 통한 결속 확대하자) - 공동사업의 베네핏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추후 성과 정리) (확정)</p>
<p>공통 논의</p>	<p>(확정) - 조직활성화를 중심으로 TF 재편(회원 만나고 비회원들 섭외하는게 주요역할· 이외에 이사회 정비, 회비구조 안정화) - 올해 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분과 활동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 같음 - 회원사·비회원사들에게 지금까지 청사넷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공유하고 총회·회원사 모집 이후 분과 가입 독려 - 청사넷 신규회원이 들어올 경우, 꾸준히 리스트업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 폐쇄성에 대한 오해 지우기)</p> <p>(계획) - 적극 활동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타겟화해서 영업할 필요 있음 - 청사넷 활동의 성과들을 정리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정리) - 10월쯤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보고서 쓰는 것을 제외하면 11월-12월에 여유가 생김. 11-12월에 기업 대표님들 방문하자(현재 월 회비 2만원 내는데, 조직별 유형별로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옴) - 비회원사들 만나서 설득할 때 우리만의 미션·비전을 갖고 공유해줘야 설득력이 있음·기존 회원사들에게는 청사넷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 제시해야함 - 내년 총회에 적극적으로 분과 가입·활동 독려 - 긴 호흡으로 가되 작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함(회원들과 계속해서 교류하는 한 축 ·내부 구조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한 축) - 민관 인력풀이 작다 보니 청년·사회적관광 관심있는 사람들도 적극 섭외해서 풀을 넓혀보자. 민관동아리 운영에 참여</p>	

4) 활성화 계획 세부논의

Ⅰ 5차 워크숍 결과

(1) 네트워크 과제 확정 및 추가 의견

	발표내용	피드백	구성원
구성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회원사 중 참여·결합이 잘 되지 않는 회원사들에게 홍보·마케팅·디자인 지원할 수 있는 분과 만들고자 함. 분과를 통해 멘토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소개하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충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자 함 - 회원사들의 고충을 조사해보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분과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방법을 제안 (가령 달빛마켓 청년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지만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과 소통이 가장 많음. 중년층, 젊은 엄마들이 어려움 겪을 때 청년·중장년 팀을 만들어서 분과가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 - 업종별 분과 구성해서 시니어·청년팀을 구성해서 비회원 방문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설득 - 구성원 확대를 위해서는 만남 횟수를 늘려야 함. 달빛마켓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과 결합) 청양군 마을 만들기센터 사회적경제팀이 열심히 현황 조사를 하고있음.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게 신규조직이 설립되면 중간지원 조직과 같이 방문해 관계 맺을 것을 제안 - (네트워크) 기존조직도 그렇고 신규 조직들에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네트워크에 왜 참여하는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실히 논의해야할 것 같음 - 네트워크에서 가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혜택 제공이나 이익 제공과 관련 해서 많이 논의하지만 '돈 안 벌고 행복해지는 방법'과 같은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고 소홀했음. 가치 공유가 되면 좋겠음 - 조직 구성 시 철학과 가치관 합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 	<p>최치희, 허지혜, 임수빈, 김민정, 김용태</p>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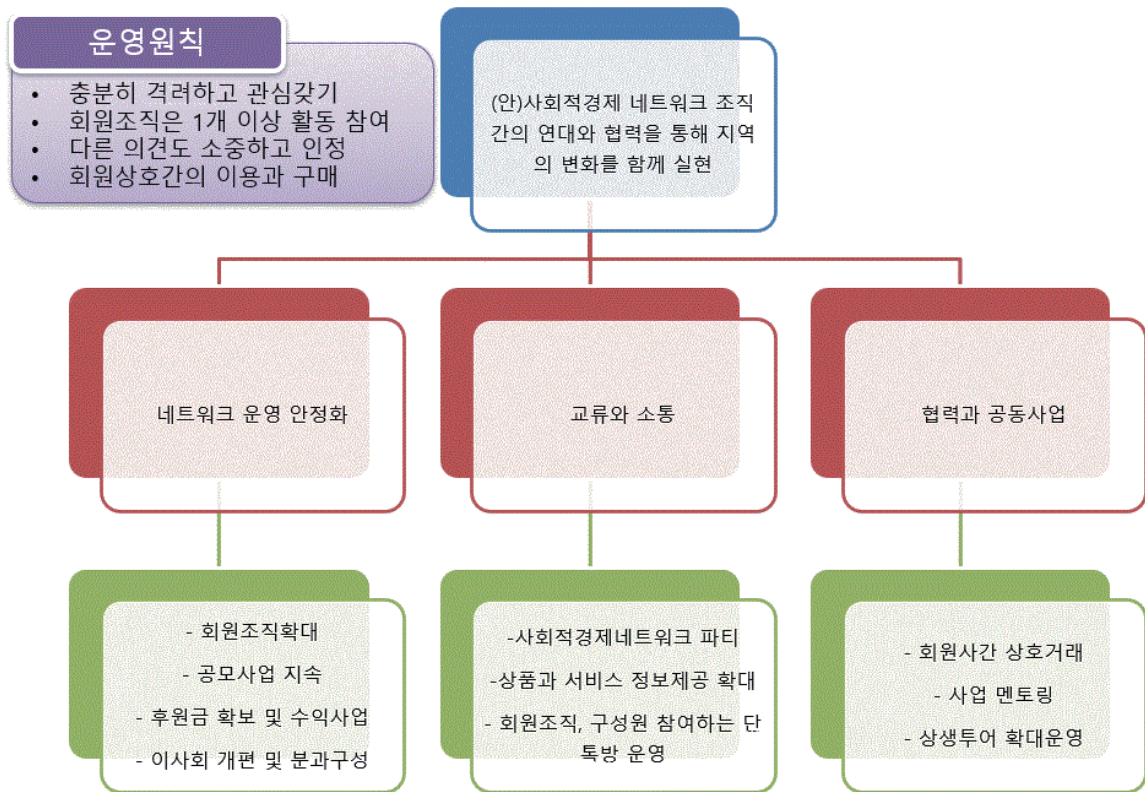
	발표내용	피드백	구성원
<p>재정 안정화</p>	<p>(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넷 단독 사무실이 없어서 관광두레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음. 월 사용비만 최소 15만원 - 달빛마켓과 별도로 네트워크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2명의 인력 필요. 인건비가 지원되지(지원되는 시기에도 10% 자부담 해야 함) 않는 1-3월에 별도 비용 필요함. 최저시급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고려하면 기본비용 750만원이 됨. 청사넷의 경우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 듣는 출장 비용과 업무가 많아서 인건비·활동비가 많이 듦 - 인건비 지원 자부담 비율·사무실 사용비 및 관리비·인건비 포함하면 1년에 최소 1650만원, 월 137만원이 필요한 상황 - 현재 회비 잔금이 29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1,35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 <p>(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금액을 특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청사넷 취지나 활동내용을 지역의 기업·단체들에 공유해서 500만원 목표로 후원받기) - 타지역 행사에 청사넷 회원들의 제품·서비스 제공 받아서 수익 창출(마케팅도 가능) <p>(미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화 고민·논의가 있었지만 결정하지 못함 - 청사넷 수익사업 하는게 적합할지 추가 논의 필요 - 개인에게 청사넷이 필요한가 논의가 필요 	<p>(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들 사회공헌활동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충사연을 공유해서 증명(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p>(청사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그룹이 재무적으로 비빌언덕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는 서울에서도 한 명 뭉의 인건비 만들기 어려움 - 지역과 관계 맺는 일반기업들도 수익금 중 일부 사회공헌 하는데 그런 영역도 확보해주면 좋을 것 같음 <p>(청양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에서 인건비 지원과 같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없는지 공금.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음 	<p>박영혜, 성옥, 임득균, 홍민기, 강윤정</p>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발표내용	피드백	구성원
<p style="text-align: center;">의사결정 및 참여구조</p>	<p>(정관, 총회, 이사회, 회의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넷 회원사나 신규가입자들에게도 정관이나 규정을 확인할 수 있게 공유가 되면 좋겠음 - 이사회 구성시 청년들도 같이 참여시키면 좋겠음 - 회원사들에게 정관의 내용 공부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p>(조직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기업들이 비빌언덕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에 공감 - 기존 멤버들도 비빌언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자문단이나 후원단 구성의 필요성) - 업종별로 분과 구성할 것을 제안 (체험과 숙박, 굿즈, 식음, 기타서비스) - 느슨한 네트워크로 갈지 규정·체계·책임이 엄격한 네트워크로 갈지 내부에서 논의해봐야 함 - 현재 사무국 상임이사님의 무보수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무보수라서 좋은점도 나쁜점도 있음. 희생하는 시스템이라 공감대 형성이나 지지가 잘 이뤄지지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밥값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음) <p>(달빛마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달빛마켓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달빛마켓 단순히 사업 아닌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있다고 생각함 	<p>(청사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빛마켓 딜레마가 있는데 달빛마켓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끈 역할을 하고 있음. 달빛마켓 없어도 네트워크 중심없는 껍데기가 남을 수 있지만 달빛마켓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달빛마켓을 유지하면서 청사넷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조직활동가, 행정 업무 관리) - 이사회, 사무국, 분과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야함 - 사무국에만 일을 몰아넣는 구조는 최대한 지양해야함 - 이사회 모집은 사무국이 아닌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사회 재정비의 필요성 <p>(지역활성화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넷에서 재단에 사업화 영역에 대해 제안할 필요가 있음(시장에서 판매활성화, 공공판매 활성화, 일반 유통시스템, 이벤트 사업은 청사넷이 아닌 지원조직에서 하도록 유도) 	<p>박영숙, 전귀정, 김정옥, 김종길, 이재영</p>

	발표내용	피드백	구성원
교류·소통 ·공동사업	- 3, 4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 (상호거래) - 회원사 간 상호 거래 추진(10%할인 통한 교류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파티·멘토링) - 네트워크 활성화 파티 연 6회 계획 - 선배기업과 후배기업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에서 선진지 답사 제안 -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니더라도(개인회원들도 참여) 달빛마켓·네트워크 파티 통해 유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파티 구성할 예정 (꾸러미, 상생투어, 신규사업) - 지역활성화재단과 연계해서 꾸러미 상품 개발하고 칠갑마루나 농산물 마켓, 유성직거래매장에 판매가 가능하려고 함. 디자인, 패키지, 가공 유통 작업 협업 - 꾸러미 상품 판매를 통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상생투어 자리 잡아서 청사넷 회원사들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 청사넷에서 홍보마케팅 분과 만들어서 회원사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음(공통)	(청사넷) - 네트워크 파티 때 회원사·비회원사들로부터 네트워크의 비전·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키워드 뽑아낼 것을 제안. 키워드 추출하고 총회나 활성화 워크샵에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칙 만들 것을 제안 -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볼 것을 제안 (10월에 구성해서 2월까지 올해 사업 평가와 내년 사업 계획 수립)	김기철, 이광현, 오주아, 김은진, 구민진, 오주아, 소철원, 김재동

5)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도



6) 실행계획서

1. 회원 조직 확대

□ 목적 및 목표

- 목적
 - 참여하지 않는 회원사/비회원사들 참여/가입 활성화
 - 신규조직들의 네트워크 가입 활성화
 - 구성원 확대를 통한 조직 안정화(회비 확보) 및 사업 활성화(꾸러미 등)
- 목표
 - 지역활성화재단과 신규조직 지속적으로 방문 (군청연계)
 - 분과 활동을 통한 회원사/비회원사 지원 1회 이상
 - 네트워크 회원사 10개 이상 확대(단체)

□ 진행 과정 및 내용

- 마을만들기센터 현황조사 공유받고 신규조직 설립 시 방문 동행
- 네트워크 운영위에서 기존조직/신규조직의 궁극적인 참여 목적 및 필요성 확인 및 가치관/철학 공유(혜택/이익 제공 이외의 논의)
- 회원사/비회원사 방문/만남을 통해 고충 조사 및 정리
- 분과 및 위원회를 통한 회원 확대

□ 진행 일정

내용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신규조직 방문															
회원사/비회원사 고충 조사															
회원확대 목표 점검(이사회)															

□ 필요예산 및 인력

- 필요예산 : 신규조직 방문 시 다과/식사 제공, 네트워크 분과/운영위 모임비용
- 필요 인력 : 방문 인력, 조사 인력, 분과 운영 인력, 네트워크 운영 인력

2. 네트워크 의사결정/참여구조 정례화

□ 목적 및 목표

- 목적
 - 네트워크 활성화/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모임의 정례화
 - 이사회, 사무국, 달빛마켓, 분과 명확하게 역할 분담
 - 이사회 등 다양한 논의구조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 목표
 -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정기적 논의 구조 운영
 - 네트워크 분과 구성((안)소통조직분과, 공동사업분과)
 - 회원사들에게 정관 및 총회/ 이사회/ 분과회의 회의록 공유

□ 진행 과정 및 내용

- 회원사 네트워크 현황 파악 및 정보소통
 - 이사회/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공유
 - 분과별 사업계획 파악
 - 분과별 사업 진행 준비 및 진행 과정 파악
 - 사업 진행 준비 및 진행 과정 상 애로사항 논의
 - 회원사 조직 및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단톡방 운영
- 이사회 재정비/정례적 운영
 - 이사 교체 및 인원 보강 (이사회 인원강화 5명->7명, 60% 이상 참여)
 (소철원, 허지혜, 명덕재, 박영혜, 최치희, 김현숙, 김정숙, 이춘복)
 - 연간 6회 이상(2개월에 1회 이상 운영)
 - 이사회에 청년도 참석 (일정 비율 이상 청년 참여 보장)
 - 이사회 진행 시 분과장 참석
- 네트워크의 다양한 분과 구성
 - 소통조직분과 : 수상한괴짜들, 청양사람, 청아름협동조합, 관광두레협의회
 - 공동사업분과 : 어찌다로컬, 나눔영농조합법인,
 - 회원사/비회원사에 다양한 지원 제공(동일업종 선배 기업 방문 등)

□ 진행 일정

내용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이사회 보강					
이사회 개최					
분과구성					
이사회 및 분과 회의록 공유					

□ 필요예산 및 인력 : 비예산

3. 네트워크 교류와 소통 / 공동사업

□ 목적 및 목표

- 목적
 -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 확대
 -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로촉진을 꾸러미/협력사업 통해 촉진
- 목표
 - 사회적경제인의날 지원조직과 공동으로 주체 및 참여, 네트워크파티(2022년도는 사업 성과 보고회) 2회 이상 추진(회원사 80% 이상 참석)
 - 사회적경제조직 상품 및 서비스 정보지 제공(행사 때)
 - 네트워크 멘토링 관련 조사 및 연계
 - 상생투어 연계상품 개발 및 실행(10회 내외)
 - 청양군 네트워크 상호거래를 위한 물품·서비스조사 1회/상호거래 협약식(상호거래 장려하는 시상식)

□ 진행 과정 및 내용

- 네트워크 활성화 파티
 - 연 2회 계획(사회적경제인의 날 공동참여, 네트워크파티(성과보고회) 등/청년/멘티 중심으로 행사 기획)
 - 네트워크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진행
 - 회원사/비회원사로부터 네트워크 비전에 대한 이야기 듣기/실천 계획 도출
 - 기업을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사례나 공유하고 싶은 자랑거리 발표(순서 정하여 약 30분 진행)
 - 회원사 8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상호거래
 - 판매상품, 체험 프로그램 논의/ 상호거래 방식 논의
 - 단톡방 활용 방식
 - 10% 할인 통한 교류 활성화
- 네트워크 회원사 1:1 멘토링 연계
 - 선배 기업 중 전문 자문과 멘토링 가능한 내용을 조사
 - 상담 요청 발생 시 사무국에서 멘토/멘티 매칭
- 상생투어
 -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청양을 소개하는 투어상품 개발
 - 상생투어에 참여할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 및 코스의 다양화
 - 향후 네트워크 대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 기준 마련 등

□ 진행 일정

내용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상호거래 조사					
2023 상호거래 목표 수립					
멘토 희망기업 조사					
상시 멘토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파티					
상생투어 상품 개발 네트워크 회의					
상생투어 사업진행					

□ 필요예산 및 인력

- 상호거래 현황 조사 비용/인력
- 상호거래 활성화 인력
- 네트워크 활성화 파티 비용/인력
- 상생투어 상품 개발 및 사업진행

4. 재정 안정화

□ 목적 및 목표

- 목적
 - 네트워크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지원금/사업비 이외에 네트워크 회비/기금/후원비 확대 및 확보
 - 자부담 인건비 안정적 확보
- 목표
 -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별도의 운영비/인건비(인건비 자부담, 사무실 사용 및 관리비, 인건비 포함) 해서 약1,000만원/월 80만원 필요·확충
 - 인건비 지원금/지원사업/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 달빛마켓 등 2건 7,000만원 이상 확충
 - 네트워크 회비(25만원/월, 300만원/연간) + 네트워크 내부 후원비(300만원/연간) 600만원 이상 확충
 - 네트워크 측면의 수익사업 혹은 외부 후원 : 400만원

□ 진행 과정 및 내용

- 기존 공모사업 지속적으로 확보
 - 달빛마켓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와 인건비를 확보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금(부족한 금액 확보)
 - 청사넷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사연을 경유해서 기부금 형태로 전환 가능
 - 전년도 흑자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 전략 수립
 - 지역의 기업/단체로부터 사회공헌 비용 확보 전략 수립

제3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 타지역 행사에서 물품/서비스 판매 통한 수익 창출
 - 달빛마켓에 후원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청사넷 운영비로 확보 40만원*5회
 - 사회적경제인의날(네트워크파티)때 기부와 후원 및 경매
 - 지역기업 물품 후원을 통한 수익사업, 후원금확보를 위한 이벤트 등

□ 진행 일정

내용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달빛마켓 등															
사회적경제인의날 등															
내부후원 기획, 모집															
외부기업 등 모집(이벤트)															

□ 필요예산 및 인력

- 필요예산
 - 사회공헌 후원 모임 조직화 비용
 - 기부 상품/서비스 판매 팀 조직화 비용
- 필요 인력
 - 사회공헌 후원 모임 운영 인력
 - 기부 상품/서비스 판매 운영 인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제4장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진행 개요

1) 모니터링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4개 지역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했고 2022년 현재 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 사업 이후의 경과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현장에서도 타지역 사례 파악에 대한 수요가 높음(서산, 서천, 청양). 충남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논의해볼 주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함

2) 모니터링 진행 개요

	일자	지역	진행방식	참석자
1	2022.05.25.	논산	온라인 줌	하00, 김00, 오00, 이00
2	2022.05.25.	서산	온라인 줌	김00, 서산 네트워크 간사, 김00, 오00, 이00
3	2022.05.25.	공주	온라인 줌	김00, 소00, 김00, 오00, 이00
4	2022.05.26.	당진	온라인 줌	송00, 조00, 김유숙, 이경원
5	2022.09.01	서산	대면	김00, 이00
6	2022.09.07.	공주	대면	소00, 이00
7	2022.09.07.	당진	대면	박00, 이00
8	2022.09.28.	논산	온라인 줌	하00, 이00

- 1차 모니터링에서는 네트워크 사업 이후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음. 2차 모니터링에서는 네트워크 사업과 별도로 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과의 역할분담, 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교육에 대한 아쉬움, 정책·제도·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음. 5장 2절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했고 3절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네트워크 사업의 참고점과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등)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음

2. 지역별 사업 진행 개요

1)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공주

(1)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그림>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체계도

- 2021년까지 2년간 미운영 상태에서 정기회의 및 행사 등 네트워크 기능 정상화
- 2020년 이후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 및 의지가 있는 신입 대표 및 이사진 선출
- 사회적경제 홍보 행사, 네트워크 회원사 간 동료 멘토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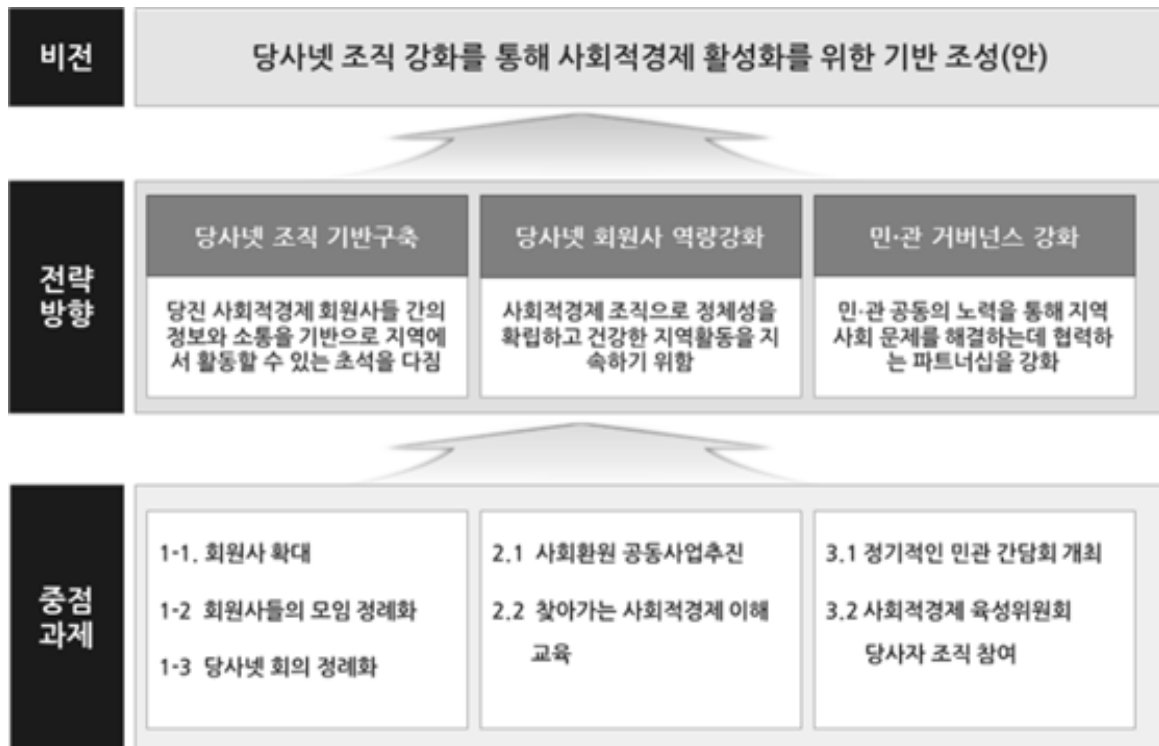
(2)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리더십과 인수인계 과정의 오류
 -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1.5세대 리더들이 2기 운영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서 연구진행과정의 결과와 과정이 정확하게 인수인계되지 않음
 - 또한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이 상대적으로 신진조직(협동조합)의 젊은 리더들로 구성되면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최근에는 2기 임원들(특히 대표)가 다양한 활동과 사업으로 소진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함

- 사업만 하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 새로운 대표와 리더십이 형성되고 광역단위 사업, 기초단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보해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자체의 조직 활동은 거의 없어지고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직들만 결합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짐
 - 선배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고,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러한 상태를 만들게 된 것으로 보임
 - 네트워크 구성원의 세대교체로 사업이 없는 경우 모이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 사업을 하되 조직의 활동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멘토링, 맨투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구성원의 세대교체 실감
 -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초창기에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이 많이 모여 창립 되었음. 하지만 현재는 네트워크 성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성격으로 바뀜. 이전 1세대처럼 사회적가치를 우선 순위로 하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졌음. 또한 회원사들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1-2명이 일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부족에 처해있음)
 - 현재 이러한 구성원 교체상태에서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함. 각 직군별 협의회(마을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를 강화하거나 사회적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업들(개인이나 소상공인연합회도 포함)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재조직화해야 함. 무엇보다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 모여야 조직의 지속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

2) 20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당진

(1) 당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그림> 당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체계도

- 당사자 간 친목 위주의 네트워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당진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당사자 조직의 참여
- 네트워크 내 회원간 소통에 대한 역량 강화
- 네트워크 임원 중심의 사업 진행에서 네트워크 회원별로 사업을 나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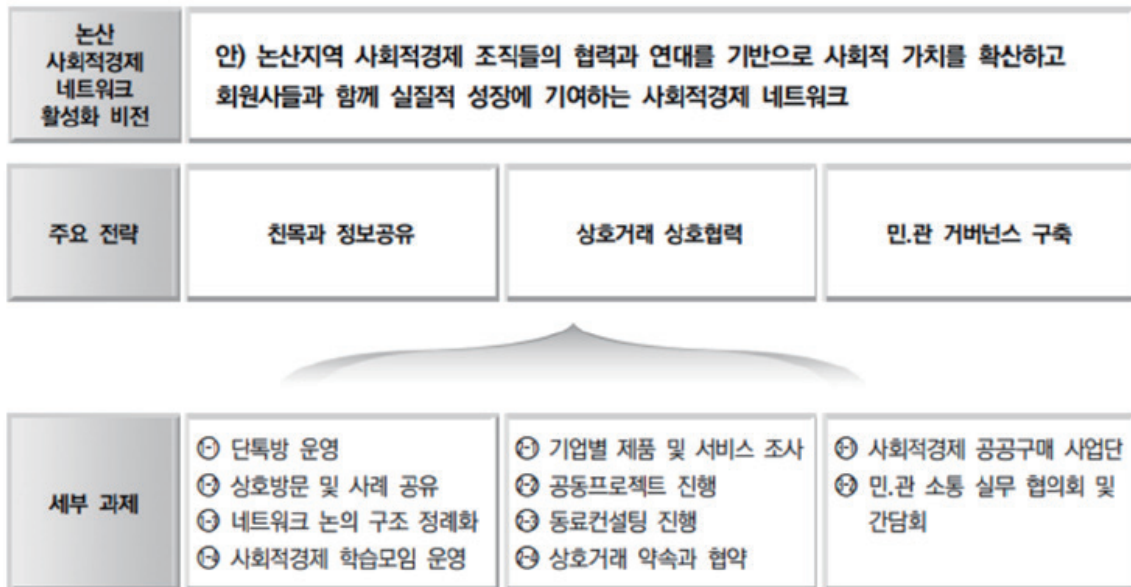
(2) 당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민관거버넌스 및 지방선거
 - 작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시 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을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변화시켰던 경험을 했음
 - 지방선거에 정책제언으로 적극적 개입과 이후 공약실행에 대한 점검 필요
 - 담당부서(팀장)장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여전히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있음(조례개정 등이 필요함)
 - 또한 민관정책협의도 진행하지 않던 것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동간담회 등을 제안을 하고 있음
 - 제도가 때때로 현장보다 속도가 느리기도 함. 관에서는 무조건 사례나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함. 이러한 대응이 창의적인 접근이나 아이디어 생성을 어렵게 함
 - 시에서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음. 새로운 안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현장에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거절될 경우 네트워크 실무자가 동력이나 동기부여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네트워크 내부
 - 회원 증감 : 큰 변화가 없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기업협의회의 회원사 증가가 없었고,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중 신규로 가입한 사례가 없음. 조직 확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음
 - 협력구조 : 핵심 멤버들과 소통구조는 매우 좋아졌음. 매월마다 진행되는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네트워크 대표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약간씩 역할 분담하여 담당을 지정하고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음(총무역할도 나누어서 맡고 있음)
 - 특히 공동사회공헌 활동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중
 - 소규모로 네트워크를 운영해도 작동이 잘 될 수 있음. 2015년 소규모로(인증 2개, 예비 3개) 네트워크를 운영했지만 오히려 재미도 많이 느끼고 팀워크도 잘 되었음. 공고가 뜨면 예비가 인증에게 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음. 또한 멘토링도 수월하고 조직간 이해도가 높고 기업 상호 방문도 활발했음. 당진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18개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논의나 공통분모·지향이 분산되기도 함
 - 넷피아 등의 외부자원을 통해 회원사들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음. 광역단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지역과의 협력, 시민 이해도 향상
 - 중앙 및 광역단위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 지역에서는 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분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등을 위해서 지역행사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운영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이 기업 운영에 바빠서 네트워크에 몰입하기 어려움. 네트워크에 신규 인물 발굴이 안 되고 후세 양성도 안 됨. 지원센터가 부재하니 지원센터 운영비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면 네트워크 운영이 훨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인건비 보조) 시에 중간 지원조직 설립 또는 그에 수렴하는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 현재 시에서는 세무회계비, 홍보부스, 협의회운영(300만원) 지원해주고 있음
 - 초기 진입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공식 지원이 없음. 네트워크에서 그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 진입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포기하거나 지원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 가령 사업 개발비 사용 방법을 모를 경우 일대일로 만나 직접 설명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음. 시에서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시와 정책협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 시에서 지원이 어려울 질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자체 수익사업(근로자 빨래 위탁 사업) 해서 사회공헌도 하고 자체운영비 마련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근로자 세탁사업의 수익금을 사회공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함

3)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 논산

(1)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 열정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 발굴
- 회원 대상 교육 제공
- 네트워크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 지원사업 등 네트워크 회원사 대상 정보 제공
- 논산시와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2) 논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본과의 원활한 역할분담 및 정기모임 지속적 운영
 - 2021년도 워크숍을 통해 4개 분과 구성 → 현재 3개 분과 활동
 - 각 분과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조직 및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음 (하주현, 김병기, 배꽃잎, 이진선)
 - 워크숍 이전에는 하주현 대표 개인이 총무, 행정, 사업진행을 모두 맡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
 - 정례적 모임도 6명(조직) 정도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 회원사들이 월 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서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적 파트너십
 - 2022년도에 논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네트워크와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 네트워크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도 많았지만, 현재 네트워크의 역량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했음
 - 민·관협력은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서 수시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 같음
 - 논산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외부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했는데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위기상황이 발생.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과 사회적경제협의회 실무협의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함.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신뢰와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논산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것의 한계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함. 외부에서 온 젊은 실무자의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지역을 환기하거나 자극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통합지원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 맺기임. 통합지원기관에서 정답을 가져오기보다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해결방안도 찾아야 함. 통합지원기관을 내부에서만 맡아도 안 되고 외부에서만 맡아도 안 됨. 내부와 외부가 관계를 지속해서 맺으면서 논의를 해야 함
- 네트워크 학습 모임 시 '재미'라는 요소의 중요성
 - 올해 네트워크 학습모임을 꾸준히 했지만(7-8월 제외)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음.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가치나 이론 위주로 학습했는데 학습자의 관심도나 참여율이 낮았음. 하반기에는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플리마켓 관련 교육을 했는데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호응이 높았음
-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네트워크)로 외연 확장
 - 올해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로 바꾸면서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들어오게 되었음. 사회적기업만 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도 더 활성화되었음. 논산시의 취약계층이나 지역문제 이야기할 때 호응이 있음. 지역사회공헌이나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활성화 논의가 더 풍성해졌음. 또한 네트워크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전보다 영향력도 커진 것 같음

4) 2021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 서산

(1)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3) 서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3개년 전략체계도

〈표 4-21〉 서산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3개년 전략체계도

서산 사회적경제 3개년 비전	민·관의 상호 협력과 실천을 기반으로 서산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주요전략	사회적경제 기본조성 및 지원	민·관 거버넌스 실현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홍보	서산지역 특화사업 발굴
핵심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공공구매 및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과 협력관계를 강화 민간영역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친숙하게 인식 사회적경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공공영역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 모델을 제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독립 공간 확보 및 조성 ㉢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조사 ㉣ 공공구매 연구 및 매칭 ㉤ 유통·판매 시장 진입 지원 	<p>〈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성 <p>〈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 서산지역 경제인단체 연계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홍보 강화 ㉡ 시민 대상 사회적 가치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관련 이벤트 및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형 사회적가치 선언과 실행 ㉡ 찾아가는 문화체험 및 교육 ㉢ 지역돌봄 시범사업

- 네트워크 내 업종별 분과모임 진행
- 네트워크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 홍보 꾸러미 판매 기획 준비

(2)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이후 상황

- 분과 및 월례회의 운영
 - 분과별(돌봄, 환경, 꾸러미)로 팀장님 선정. 제일 활발한 곳은 꾸러미. 월례회의에서 봉사활동 연계해서 사업하는 회원사가 있는데 사업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1-2명정도 결합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인원이 적게 나와도 매달 분과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나 아이টে이 없는 환경, 문화예술 분과는 많이 흐지부지해졌음. 분과도 일정 정도의 구성원이 있고 각 조직별로 연계할 수 있는 아이টে이나 사업이 있어야 운영이 됨
 - 각 업체별로 관심가질만한 아이টে이를 발견해서 개발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금을 마련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음. 외부사업·회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꾸러미의 경우 답례품 외에 소비자에게 시제품보다 더 만족도가 높을 꾸러미를 구성하고 있음
 - 월례회의 2월에는 못했지만 매달 하려고 하는 중. 매회 6-10명 정도 참여. 많이 나오면 회원사의 1.3정도 나옴. 회장님 거의 매번 나오고, 구성원들은 매번 바뀜. 코로나19가 완화되어서 모임 독려를 하려고 함
- 회비납부 및 안정적 조직운영 과제
 - 회비는 35개 회원사 중에 7개만 회비 내고 있음(연회비, 인증사회적기업 70만원·나머지 30만원으로 월 3만원 이하).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업체(급여지급도 어려운)는 회비 부담스러워함. 회원사들이 월3만원의 회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1만원으로 내려서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네트워크 간사가 지원사업을 서치해서 공유하거나 복잡한 서류작업을 지원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음. 서류작성의 경우 잘 못 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 체크해주거나 그랬는데, 그게 네트워크 혜택이라면 혜택이라 할 수 있음
 - 2년에 한 번 실무자를 바꾸려고 함. 그러나 집행부가 한꺼번에 바뀌면 연결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함
 - 직접 전화 돌리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효과가 큼
 - 회의 끝나고 선배 기업들과 일대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음. 유사업종에서 오래 일한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됨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적 파트너십
 -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많은 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내부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 부족한 것도 현실
 - 2022년 기준, 꾸러미세트를 통해 회원사들 참여 독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제품들 납품하려고 했음. 시(시민공동체과)와 지원센터에서 꾸러미세트(7개) 구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음. 시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 쪽에서 30%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보려고 함
 - 안내 책자(이전에는 가나다 순 배열) 리뉴얼(현재는 업종별 분류)해서 배포할 예정. 6월 말쯤 완성해서 7월 둘째 주쯤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서산시에 면담 요청했음. 학교 행정실에도 책자를 돌렸음
 - 초창기에는 시 관계자들 만날 때 많은 인원이 모여 갔는데 소수의 인원만 가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게 좋음. 또한 시 관계자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동영상 자료(충남사경센터 1분 요약 영상같은)를 활용하면 좋음
 - 시장 바뀌고 나서도 꾸준히 만나서 제안하려고 함. 10월 중 사회적경제 부스 운영 제안하고 11월초에 정식면담 신청해서 공약에서 사회적경제가 빠져있다고 이야기할 예정

- 공무원 대상 사회적가치 강화
 - 기존에는 공무원들을 소극장에 초대해 연극을 보게 했음. 올해부터 시의 권유로 500여 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문화회관에 초대해서 10개 업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기로 함. 작년과 비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 제고 활동을 함
- 꾸러미 사업의 어려움
 - 꾸러미 포장 디자인은 지역 대학에서 지원해줘서 결과물이 괜찮게 나왔음. 다만 아쉬운 점은 꾸러미 상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제한적이라는 점. 고향기부금제 취지에 맞춰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들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다 보니 20세트 중 4세트(3, 5, 7, 10만원)만 최종 선정이 되었음
 - 또한 꾸러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있었음. 개별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상품의 구성을 기획해서 답례품을 만드는 것인데 개별 조직 상품·서비스의 판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
 - 꾸러미가 잘 될 경우에도 문제가 생김. 꾸러미 주문량이 많아질 경우, 꾸러미에 대한 세팅비용이나 기획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까지는 예산에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꾸러미 단가를 매길 때 박스 제작·디자인비, 기획비용, 운송비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마진이 남지 않게 됨. 마진이나 생산과정 또는 생산 비용을 고려해서 단가나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음
 - 일부 업체들만 꾸러미에 참여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 네트워크에서는 꾸러미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이야기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가령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경우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들 위주로 구성했음을 이야기하고 답례품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품을 제작해볼 것을 제안했음(가령 비누를 제조하는 곳에 해미읍성 모양을 만들라고 제안·7만원짜리 참기름을 작은 병에 소분해 3만원 이하로 낮추라고 제안 등)
- 지속적인 만남의 필요성
 - 회장·사무국장·간사가 사비 쓰면서(시 보조금이 있지만 간식비나 식사비 용도만 가능·개인적 만남에서 지출 불가)회원사들을 만나러 다녔음. 개별 조직들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음
 -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টে이나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옴. 회의를 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함. 꾸러미의 경우에도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 불우이웃 돕기 입찰공고를 보고 자연스럽게 서산넷 내부에서도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작년부터 시와 계속해서 꾸러미 논의하다 보니 올해 고향기부금 답례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3. 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 주요 이슈

1) 대상별 이슈

(1) 네트워크

① 네트워크 실질적 운영을 위한 참고점

- 네트워크 리더들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네트워크 유지가 됨(총회, 월례회의, 정관 인지 및 공유 등).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가 기본인데 이를 충실하게 실행해야 함(공주, 당진, 서산 공통)
- 현재 네트워크 대부분 일부 구성원들(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쳐서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큼. 역할분담이 필요함. 서산은 2년에 한 번 씩 점진적으로 실무자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음
-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일하지 않는 이사는 과감하게 빼자고 제안해서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논산)
-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회원사들 일대일로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게 중요함. 네트워크에서 회원사들을 개별 인터뷰하면서 현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네트워크 조직 유지에 중요함(서산, 공주)

② 네트워크에서 인내와 포용의 중요성

- 인내하면서 꾸준히 나오는게 중요함. 꾸준히 네트워크 모임에 나와서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생김(당진, 서산, 공주 공통)
- 상호거래 할애이나 개별조직의 물품 기증 당장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상호거래 할애이 추후 업무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물품기증은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제고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음
-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회비를 내기보다는, 회비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식으로 설득해야할 것 같음. 회비를 냈으로써 연대정신이 구축될 수도 있음(당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큰 틀에서 배제의 관점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운영해야함. 마음이 안 맞거나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만나면서 함께 일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조율해가야 함(공주)
- 사회적경제조직들 진입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감이 생길 것 같음. 그렇지 못해서 사업개발비를 못쓰고 반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음(서류나 사업기획력이 안되어서)이런 조직들 중심으로 초기·중기로 세분화 대표자회의·중간회의·기초회의 세분화해서 네트워크에서 교육을 구성하면 좋겠음
- 당진은 내부갈등이 있었지만 타지역에서 워크숍을 통해 일정 극복함. 무관심보다는 갈등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 갈등을 매개로 조율이나 조정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음

③ 결사체와 사업체 균형 맞추기의 중요성

-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회원사·비회원사로부터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뭐 해 줄 수 있나?’라는 말을 들음. 네트워크 초반에 자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연대와 협력하기 쉽진 않음. 신뢰와 관계가 탄탄히 쌓이기 전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시각이 있음. 네트워크 내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이나 인식제고가 필요해 보임. 사회적가치뿐 아니라 경제적가치를 통해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하는데 쉽지 않음
- 공주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축제나 프리마켓을 개최했는데 회원사는 회원사대로 일을 했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참여한 조직들 각자가 가져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수익이나 회비가 많지 않아 무료행사나 자산 바자회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 행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논산과 서산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자체에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일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논산의 경우 전주무관을 중심으로 5-6명이 사회적경제 학습을 하고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함. 네트워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 필요를 느끼는 사람 들끼리만 모여도 의미가 있음. 서산에서는 아직까지 네트워크 회원사에게 큰 혜택은 없지만 간사가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찾아서 공유하거나 복잡한 서류작업을 지원해줬음. 이러한 활동이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음. 또한 서산은 지속적으로 모임 이후 선배 조직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함
- 논산은 네트워크 모임에서 간식에 신경을 많이 썼음.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간식을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사람들이 모임에 나오게 독려했음. 또한 모여서 이야기하다보면 서로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게 됨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기업체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지원사업에만 의지하고 네트워크에서도 받는 것만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내실을 탄탄히 하기 위한 운영방식이나 연계·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면 좋겠음(서산)
- 사회적경제의 주요 미션을 지역경제로 설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존립 근거를 세우고 영향력을 높이면 좋겠음.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이 아니더라도 지역문제에 관심 있고 활동하려는 일반기업들과도 연계해서 지역에 봉사해야 함(논산)
- 네트워크에서 사회적가치만을 강조할 때 설득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되려 기업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운듯한 느낌을 주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가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임(논산)

④ 사업 및 법인화 신중한 논의와 판단 필요

- 지원사업이나 지원제도가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제도들이 네트워크의 구성과 유지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음. 긍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전유물로, 부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사업을 선불리 했다가 네트워크 본래 취지를 잃고 실무자에게만 일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논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원센터 위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결집이나 정비가 된 이후에 고민해 보기로 했음. 회원사간 이해와 신뢰 관계가 생기고 나서 위탁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공주에서는 네트워크가 중간지원조직화 되는 것을 경계했는데 당사자조직의 가치중심적인 게 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⑤ 네트워크 구성원 세대 교체 반영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안에서도 확실한 세대차가 있음.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다르게 됨. 초창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시민사회나 공익을 목적으로 모였다면 중후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제도를 통해 들어오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게 됨. 후반기에 유입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인력 동원 형식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당진, 공주)
- 사회적경제 1세대 운동권이 많았는데 현재 유입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보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그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공주, 당진)
- 네트워크 유입 시점이 다른 세대 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장이 필요함.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그러한 교류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신세대와 구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하고 신세대들만 모일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함(당진, 논산, 공주)
- 연령대가 낮은 회원사들 시에서 그리고 협의회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별도 모임을 만드는게 좋음. 경력이 오래되고 연령대가 높은 조직들과 함께 할 경우 그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모임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음(논산)

⑥ 지역과 관계 맺기의 필요성

- 당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시장과 협약을 맺었음. 공공구매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한 이후에 참여율이 저조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을 합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
- 당진과 공주는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 단체나 부서와 관계를 맺었는데 보다 다양한 활동 경로를 찾을 수 있었음. 당진은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 간담회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
- 논산은 자체적으로 플리마켓을 하면서 지역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음. 논산시 홍보과와 지방신문·방송국에서 보도자료를 내주고 전광판 홍보도 해주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도 공유 해줬음

(2)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

① 중간지원조직과 네트워크의 역할 분담 및 조정

- 중간지원조직과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경우, 역할이나 사업이 중첩되기도 함. 역할이 겹치는 경우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편의상의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을 먼저 찾기도 함. 네트워크의 당사자성을 우선적으로 키우고 중간지원조직이 이들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 조정이나 배분이 필요해 보임(공주)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현장의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논산)

② 네트워크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 및 제안

-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진입에 대한 역할·기능에만 집중되어있음. 진입 이후 육성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임. 지방 소도시 중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경우 더더욱 물어볼 곳이 없음(당진)
- 사업이나 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초기진입 단계 조직들에게 재정적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멘토를 연결해줘서 일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음(네트워크 멘토에게는 지원금 제공).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은 부재했음(논산)
- 지원사업 간 연계나 맥락이 똑똑 끊겨있는 점이 불편함. 지원사업 간 연계나 맥락을 고려해서 예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음. 지원사업이 다 끊겨서 하다 보니 시너지나 효과성이 떨어짐. 또한 지원사업에서 예외조항 같은 것을 뒤서 좀 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음. 가령 지역문제 해결 기반 협력사업을 할 경우 참여 대상을 개별조직으로만 둘 게 아니라 협회나 연합회도 들어갈 수 있게 했음 좋겠음(서산, 당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사회적경제조직 실무자·경영자 입장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겠음. 대부분 생존이 어렵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매출 증대와 연계해서도(컨설팅, 판로개척 관련 논의 등)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음(서산)

③ 네트워크 사업 성과

- 네트워크 지원사업 통해 현재의 분과장들이 책무성을 지니게 된 것 같음. 분과 구성원들 중심이 아닌 분과장들이 구성원을 이끌고 가는 양상이긴하지만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끌고 간 노력이 분과장들에게는 의미있는 경험인 것 같음(논산)
- 넷피아 사업 협회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넷피아가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의 인식을 깨게 하는데 도움이 됨. 하지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3-4년 정도 꾸준히 해야함(인증 막바지인 곳들). 대표들의 인식을 깨는데 1-2년으로는 부족하고 3-4년의 시간이 걸림(당진)

(3) 정책·제도·거버넌스

① 지역 소도시에 맞는 별도의 정책·제도 필요

- 대도시 아닌 지역 맞춤형으로 정책 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체감함. 특히나 인력·인건비 문제는 대도시와 소도시의 체감 정도나 난이도가 다름. 인력 충원 부분에서 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천안과 같은 중소도시만해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 소도시는 사회적경제조직 개수가 적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
- 지방 소도시에는 사업개발비, 인프라 구축비, 전문인력 지원비, 일자리 창출 비용에 대한 예산이 크지 않음. 또한 중앙보다는 지자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짐

② 네트워크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

- 공주, 당진, 서산 모두 행정·사무 인력의 부족을 호소. 2022년 사업에 참여 중인 청양과 2021년 사업에 참여했던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일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했음
- 지방 소도시의 경우 네트워크 운영할 때 단기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미미함. 지역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경력이 있는 청년들이 일하기에 봉급이 낮고 금액에 맞춰 고용할 수 있는 청년은 잘 없음. 그리고 청년들이 잠깐 일하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음. 충남의 경우 주변의 다른 중소도시(천안, 아산)로 떠나는 경우가 많음. 상주하는 청년인력이 없음
- 네트워크의 사업비·운영비를 집행할 인력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일시적인 일자리 보다는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해 보임. 사업비·운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높이면 좋겠음.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도와 6:4나 8:2로 분담하면 좋을 것 같음
- 일시적 인력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전문인력 충원하면 좋겠음. 단순히 인건비를 올리기 보다는 네트워크 사무국에 상주하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네트워크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필요함. 사업비는 전국단위나 도단위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하거나 기업에다 후원 프로포절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임

2) 요약

-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했던 4개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네트워크 운영이 내·외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었음.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질문이 ‘뭘 해줄 것인데’임.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익을 내기 어려움. 장시간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성과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네트워크의 사업적가치·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간 균형을 맞춰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회원사들로부터 받기도 해야 함
- 또한 네트워크의 연차가 쌓이면서 구성원 변동도 이루어졌는데 시기별로 구성원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음. 초창기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현재 네트워크 구성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조율해서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재건할 필요가 있음
- 4개 지역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에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모이고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그 외의 유관단체들과도 결합할 경우 결사체와 사업체 균형을 맞추며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거나 정책·제도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음.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소도시나에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 양상이 제각각임. 특히나 소도시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청년들이 주변 중소도시나 대도시로 이동을 많이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안했음
- 지역 소도시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네트워크 운영 단계별 장애요인 체크리스트

구분	주제	내용	어려움 여부		어려움 정도		
			여	부	상	중	하
설립	네트워크 조직화	- 초기 적극적 설립 추진 독려 리더십 여부					
		- 설립 추진의 필요성 및 동기 부여 정도					
	외부와의 관계	- 지자체의 간섭 및 지자체 주도성 정도					
		- 지자체와의 협력적 분위기					
설립 초기 단계	네트워크 조직화	- 다양한 부문, 분야, 업종 등의 참여					
		- 활동 사회적경제 조직 중 참여율 과반수 이상					
		- 네트워크 활동의 비전 및 사명 명확					
	네트워크 사업 및 운영	- 회비 및 네트워크 자체 재정 마련					
		-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가능					
		- 네트워크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관계	- 지방정부와의 상시 논의 구조 마련					
		-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시 파트너십 가능					
	지역사회 관계	- 비영리, 민간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지원					
		- 사회적경제 등 전문가 그룹의 협력과 지원					
운영 단계	네트워크 조직화	- 총회, 이사회 등 회원사들의 논의 구조 정상적 운영					
		- 신규 리더십(이사 등 사무국)의 발굴과 교체					
		- 네트워크 활동의 방향과 사업성과의 정기적 점검과 성찰					
		- 회원사들의 윤리적 운영을 점검하는 내부정화 기능					
		- 회원 조직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적절한 역할분담					
		- 회원사 간의 갈등조정 및 완화					
		- 신규 회원의 지속적 증가					
		- 정보소통과 회원사 관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 활동					
	네트워크 사업 및 운영	- 결사체로서의 조직 활동과 조직강화 활동의 균형					
		- 회비 및 네트워크 자체 재정 안정화					
		-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후원 확보					
		- 네트워크 자체 공동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추진					
	지방정부 관계	- 네트워크 자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 증가					
		- 지방정부와의 상시 논의 구조 마련					
		- 지방정부 사업 및 위탁사업 진행 가능					
	지역사회 관계	- 지자체 외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관계					
		- 중간지원조직과의 사업적 역할 분담 여부					
		- 비영리, 민간네트워크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 전문가 및 대학 기관 등과의 공동, 협력 사업 추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제5장 정책제언

1.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 강화 필요

1.	1-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변화와 실천 의지 강화 필요	1-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정비와 지원사업의 실행방안 마련
	1-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 구조마련
	1-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계획 수립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구조의 구체적 실현

-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주체와 지방정책에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정부 해당 부서와의 협력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간의 정책 공동생산과 평가가 형식화 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책임과 실현은 민간주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속적 거버넌스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 간에 △심층적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 △공동의 목표 지속적 확인과 합의 △협력을 통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쪽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실행 의지라고 할 수 있음
- 협력의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거버넌스가 존재하였을 경우, 협력단계로 도달하는 데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뒤따라옴. 단,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과정이 쉽게 극복되고 단축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³³⁾ 따라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거버넌스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아가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가치의 확산이라는 민·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동의 목표는 단숨에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움. 협력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사명과 목표,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숙의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최소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 논의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간계획 및 예산수립과 그에 대한 성찰과 평가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2021 충남 사회지표 시군편·종합편

-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외에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실무기관 정책협의회, 정기적 행정과 네트워크의 간담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충청도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정책협의 및 연찬회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의 정책 파트너가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협의회 조직과 네트워크임을 인식시키고 △보조금 사업과 지원사업을 진행할 시 민간조직과 사전 논의를 거치고 협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을 요청함

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 충청남도 지역의 지방정부는 서울 및 경기 등과 같은 수도권에 비해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정도가 조금은 뒤쳐져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4-2016년 사이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강화시켰기 때문임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례의 의미와 역할은 막강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단위에서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이 필수임. 민관의 협력 및 논의구조 또한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지원조례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는 논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등과 같이 '육성위원회' 보다는 낮은 수위의 실무 논의 구조를 명문화시키고 최고 상위 논의기구인 '육성위원회'에서 각 논의기구에서 확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보다는 민간 논의가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서울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1조 4항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무 논의를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충청남도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5개 시·군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 구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주적 경제공동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도 함.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외에 전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와의 논의 구조 외에도 해당 부서와 해당(업종 및 의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구청 자원순환과는 노원사회적경제연대,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노원지역 자원순환 사회적경제조직 연합) 등과 함께 노원구 자원순환의 날 ‘노다지장터’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바 있으며,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SOS 사업’ 등을 지역기반 통합돌봄사업의 민간논의 구조(협의회) 등에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결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 공공구매 계획 수립

-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지자체 공공구매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 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임
- 지방정부 공공구매 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구매할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종을 조사하면 다수의 기업이 ‘서비스’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해당부서와의 연계와 매칭이 중요함.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의제별 주제별 맞춤형 의제회의가 정착한다면 공공구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미스매칭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통해 품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구매에 참여할 경제조직을 모집하고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생산 총량을 조사하면 미스매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2. 기초단위 네트워크 고도화와 내실화 지원

2.	2-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기초단위 네 트워드의	2-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고도화와 내 실화 지원	2-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과 협동 사업의 개발과 지원
	2-4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증가와 활동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적 성장을 하면서 당사자 조직의 설립과 네트워크 활동을 내·외부적으로 지원받아 왔음. 그러나 그러한 성장의 과정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임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의회 및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를 확대해야 하는 기본적인 미션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과 설립과정에서 많은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됨. 그리고 네트워크가 지역 활동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초기 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네트워크 명백만 유지할 뿐 몇몇 소수 리더들의 사조직으로 변질되기도 함
- 또한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을 맡기 위해 네트워크를 법인화 한 몇몇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명 무실한 네트워크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협의회와 네트워크 활동이 당사자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주(自主)와 자조(自助)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동기부여에서 시작되어야 함.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가치와 의미가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의미성에 대해 알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광역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핵심리더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자문과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상호 정보와 신뢰가 부족한 초기 네트워크 단계의 경우 당사자 조직 내부에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초동 주체를 모집하고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방향과 원칙, 조직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의 동력과 뿌리는 당사자 조직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중간지원 조직은 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뿐, 네트워크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운영의 책임은 네트워크 회원들의 결정과 책임감 있는 물적·인적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포함)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네트워크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사무국 인건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회원사의 회비 및 재정후원이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다양한 보조금 및 외부 지원사업 확보를 통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원조직(광역 및 기초)은 네트워크에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인의날, 네트워크 파티, 상호거래 수요조사, 사회가치현황 조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자원이 부족한 네트워크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협동사업의 개발과 지원

- 초기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회원사들 간의 활동이 일정 정도 안정화된 성장한 네트워크에는 회원사들의 지역에서 활동을 보다 고도화, 내실화시킬 수 있는 지원과 협력사업이 필요함
- 지난 3년 동안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네트워크에 바라는 가장 큰 갈급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사회적가치를 확산 △회원사 간의 상호구매와 상호거래의 활성화 △공동 유통 및 마케팅 △ 공공구매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 △자조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초기 정착시기를 거친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사업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회원의 확대와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 기초 및 광역 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사들에게 공통으로 협력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을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상호거래의 실적을 네트워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트워크 힘을 실어주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음

4)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중에는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형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처럼 비영리적 성격을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조직 등 다양한 유형이 활동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들은 본인을 ‘기업’이라고 소개함
- 동일한 기업활동이라고 해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함. 즉, ‘효율성과 교환’의 법칙보다는 지역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는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사회적경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각자가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와 제도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예산, 조례 등에 대해 네트워크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해야 하며,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는 각 해당하는 업체들의 사업분과, 사업네트워크, 업종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강화

3.	3-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3-2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정보 공유와 신뢰 강화
협력과 연대 강화	
화	3-3 네트워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확보

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 충남 네트워크는 대부분이 ‘임의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법인화를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과 경영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이사회에 참여하는 몇몇 기업 이외는 네트워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성장하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보면 네트워크 활동이 성장하고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외에 다양한 논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이사회는 네트워크 경영, 운영을 결정하는 성격을 띠게 되고 실질적 사업 논의와 실행은 사업위원회 및 분과, 팀 등으로 세부화된 논의 구조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및 분과 등으로 논의 구조가 다양해 졌을 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초기 세팅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기업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함

2)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정보공유와 신뢰 강화

- ‘협의회’, ‘네트워크’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느슨한 협의구조는 소수 대표들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되기보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헌신이 기반이 될 때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음
- 회원사들이 네트워크를 찾고 필요성을 느끼며 협동할 수 있는 기반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업종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 간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식적 논의 구조의 공개도 매우 중요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대부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위원회(분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기구의 회의록과 활동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수 회원들은 네트워크 논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음

3) 네트워크의 공공성·공익성 유지 및 확보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타 지역 사례를 분석했을때(2020, 2021년도 결과보고서 참조) 성장하고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네트워크가 강력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 서울 광진, 노원, 강북 등 네트워크 조직은 법인화 과정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으로 비영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 이슈에 대응하는 분과와 위원회를 두고 있어 각 분야별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회원조직들의 결사체인 ‘협의회’, ‘네트워크’들이 자주 겪게 되는 오류는 회원사들의 이익과 편익만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이익단체화 되는 현상임.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편익을 중심에 두는 경향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개별조직들은 사회적가치와 지역 문제 해결의 의제를 주장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네트워크에는 실질적 사업을 확보하거나 판매가 잘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 네트워크가 회원사들의 이익과 사업확보를 위해서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연대를 무시하고 비슷한 유관단체 및 네트워크를 경쟁자로 두고 적대시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네트워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확보하여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시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참고자료

제1장 서론			
연번	자료명	출처	시기
1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8
2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수립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투자지원재단	2020

제2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환경분석			
연번	자료명	출처	시기
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관계부처합동	2021
2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	관계기관합동	2022
3	충남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2018
4	윤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 속 확대가능성 기대	이로운넷	2022
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충남연구원	2021
6	윤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밑그림 나왔다	이로운넷	2022

제4장 청양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연번	자료명	출처	시기
1	청양군 주요업무계획	청양군청	2022
2	2021 충남 사회지표 시군편	충남도청	2021
3	2021 충남 사회지표 종합편	충남도청	2021
4	2022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청양군	2022
5	청양군 청양통계 홈페이지	청양군	2022
6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충남도청	2022
7	청양 종합발전전략 수립연구	청양군	2015
8	2018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결과	청양군	2018
9	2020 청양군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청양군	2020
	2018 청양군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청양군	2018
10	지속가능한 청양을 위한 주민자치 정책	월간주민자치	2021
11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검토	충남연구원	2019
12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주체 설정 및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2020
13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	청양군	2021
14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2021
15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종합, 시군)	충남사경센터	2021
16	청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관	청사넷	2019
17	2022 청사넷 정기총회 자료	청사넷	2022
18	2021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충남사경센터	2021
<p>[신문기사]</p> <p>오마이뉴스, 2022.03.18., [인터뷰]김돈곤 청양군수가 꼽은 군민이 좋아하는 정책은?, 박상진 기자</p> <p>청양신문, 2021.10.12., “청년들의 인생설계 ‘깎이어’⑤ - 청양군 청년정책 ‘청양연화’. 이동연 기자</p> <p>청양신문, 2021.12.30., “2021년, 청소년 교육과 문화거점 역할·청양군청소년재단 출범”, 이관용 기자</p> <p>청양신문, 2022.02.09.,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이관용 기자</p> <p>청양신문, 2022.03.21., “관계 맺기 통한 지속가능한 청양만들기 돌입,” 이동연 기자</p> <p>청양신문, 2022.04.04.,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소통과 열정 가득.” 명덕재 시민기자</p> <p>충남일보, 2021.10.18., “충남 시군구 9곳, 인구감소..” 인구소멸지역 첫 지정, 한내국 기자</p> <p>충청투데이, 2021.12.07., “청양군민 마음 속까지 따뜻해지는 돌봄,” 윤양수 기자</p>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

발행일 2022. 11.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처 사회투자지원재단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군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청양군